

□□사리영응기□□ 소재 상림원과 전악서의 악공 연구

김우진(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사리영응기□□¹⁾는 조선 세종 때에 경복궁의 북쪽에 내불당을 짓고 열린 경찬회에서 발생한 ‘부처님의 사리에 대항 영험’을 김수온(金水溫)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책이다.²⁾ □□사리영응기□□에는 경찬회의 절차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음악학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이 문헌에는 경찬회의 정근에 참여한 261명의 관직과 인명이 기록되어³⁾ 있어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정근에 참여한 인물에는 전악서의 악공 외에도 상림원 소속의 체아직 관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용재총화□□·□□용천담적기□□ 같은 조선전기 문집에서 언급되었거나, 세조 등극 후 원종3등공신으로 책봉되기도 하였다.

상림원은 왕실의 꽃과 과일나무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악공이 상림원에 소속되었던 점도 의문이며, 원종3등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점 등이 매우 흥미롭다. 상림원과 전악서에 소속된 각 악공의 행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조사하므로써 조선 초기 악공의 신분과 활동분야 등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리영응기□□와 전악서에 관련된 음악학 분야의 연구는 안확⁴⁾·권오성⁵⁾·박범훈⁶⁾·송방송⁷⁾의 연구가 있었으나, 상림원과 전악서의 악공 개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리영응기□□와 조선왕조실록, 문집 등의 기록을 통하여 상림원과 전악서 악공의 행적과 복무 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조사한 원문에는 영인, 악공 등의 용어가 보이지만, 악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이 용어가 가장 보편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2. 경찬회와 □□사리영응기□□

- 1) □□사리영응기□□는 규장각도서, 동국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문고에 각 1부 소장되어 있고, 김수온의 문집 □□식우집□□에도 삼불예찬문·정근입장인명 등을 제외한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을 영인한 □□한국불교음악사연구□□의 부록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였다.
-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10권 802쪽.
- 3) 궁중 행사에 참여한 인물의 관직과 인명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문헌으로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각종 진연의례가 있으며, 조선 전기의 음악관련 문헌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김수온의 문집인 식우집에는 □□사리영응기□□의 본문만 수록되었고, 삼불예찬문 등의 가사와 정근입장인명 등은 빠져있어 □□사리영응기□□가 매우 중요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 4) 안자산(안확), “조선음악과 불교,” □□불교□□. □□자산안확국학논저집□□(서울:여강출판사, 1994) 권 5. 156-96쪽에 복간.
- 5) 권오성, “세종조 불교음악 관계 문헌의 연구,” □□세종학 연구□□(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7, 제2집, 89쪽.
- 6) 박범훈, “世宗大王이 創製한 佛敎音樂 연구: 舍利靈應記를 中心으로,” □□한국음악사학보□□(경산:한국음악사학회, 1999) 제23집, 5-29쪽. 박범훈, □□한국불교음악사연구□□(경남: 藏經閣, 2000)에 복간됨.
- 7) 송방송, “세종조의 아악서와 전악서,” □□세종학연구□□(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3호.

경찬회는 새로운 불상이나 경전의 조성 또는 절이나 탑의 건립을 기념하여 여는 법회를 말하며, 조선 세종 때에는 여러 번의 경찬회가 열렸다. 폐쇄하였던 내불당을 세종 말년에 다시 건립하였을 때 열린 경찬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 □□사리영응기□□인데, 경찬회가 열린 시기에 대하여 1448년(세종 30년)과 1449년(세종 31년)이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 즉 1448년 경찬회와 1449년 □□사리영응기□□ 간행으로 본 것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불당’⁸⁾ 항, □□조선왕비실록□□⁹⁾, 정상훈¹⁰⁾과 이정주의 연구¹¹⁾이며, 후자 즉 1449년 경찬회와 1450년 간행으로 본 것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리영응기□□’¹²⁾ 항, 야후백과사전¹³⁾, 동국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박범훈의 연구¹⁴⁾ 등이다. 한편 세종실록에 있는 내불당 건립과 경찬회는 1448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두 견해에 대하여 이정주는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 간행연대의 근거가 되었던 ‘上之三十有一年秋七月十九日癸卯’라는 冒頭의 언급을 세종 31년 [1449년]이 아니라, ‘上께서 즉위하신지 31년이 되던 해’[1448년]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 외에도 세종실록과 □□사리영응기□□의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문헌의 기록은 서로 같은 사실이며, 이정주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세종실록은 ‘세종 00년 0월 干支’로 날짜를 기록하였고, □□사리영응기□□는 ‘0월 0일 干支’로 기록하였는데, <표 ?>에서 보듯이 경찬회가 열린 12월 5일의 干支가 丁巳로 두 문헌이 일치한다. 세종 31년 12월 5일의 干支는 辛亥로 □□사리영응기□□와 다르다.¹⁵⁾ 따라서 세종실록의 경찬회와 □□사리영응기□□의 경찬회는 동일한 행사를 기록한 것이다.

<표 1> 내불당 경찬회 행사 일정

세종실록	□□사리영응기□□	참석자	내용
세종 30년 7월 임인(18일)		민신	불당건립 명함

- 8) 1448년(세종 30) 세종이 왕실불교를 위하여 경복궁 안에 세운 불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9) “세종 30년(1448) 12월 6일 법회를 열고 경복궁 내에 내불당을 낙성...” 신명호, □□조선왕비실록□□(서울:역사의아침,2007), 144쪽.
- 10) 정상훈, “갑인자본 □□사리영응기□□에 대하여;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1994), 제7집. 94쪽.
- 11) 이정주, “세종 31년 刊 □□사리영응기□□ 소재 정근입장인 분석” □□고문서연구□□(서울:고문서학회, 2007), 제31호, 131-164쪽.
- 12) “1449년(세종 31) 7월 19일, 세종은 의정부에 전교하여, ... 그리고 12월 6일 낙성식을 개최하여 ... 모인 사람 261인이 깊이 참회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10권 802쪽.
- 13) “세종 31년(1449) 12월 6일 새 불당의 낙성식 때” 야후백과사전 중.
- 14) 각주3)에서 동국대학교 도서 해제를 근거로 1450년 간행(1449년 행사)으로 보았음. 박범훈, “세종대왕이 창제한 불교음악 연구-□□사리영응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23집, 6쪽.
- 15) 조운호의 연구에도 세종실록과 식우집 □□사리영응기□□의 행사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 있다. 조운호, “朝鮮前期 金水溫家の 佛敎信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58쪽, 표8참조.

계묘	상 31년 7월19일 계묘	의정부	불당건립 명함
임인	11월 20일 임인		불당 완성
세종30년 11월 계묘(21일)			경찬준비 도살·행형 금지
세종30년 11월 정미(25일)			雜僧 허용/外僧供饋
경술	11월 28일 경술		궐내 齋戒
갑인	12월 2일 갑인	안평 등	신미 등 51비구 새절에 모임
을묘	12월 3일 을묘	수양 등	불상 궐에서 맞음
병진	12월 4일 병진	수양	行香
세종30년 12월 정사(5일)	12월 5일 정사	수양 등 7-800	경찬회, 점안
무오	12월 6일 무오		낙성식, 사리영응
세종30년 12월 신유(9일)			불당 금불 보호책
세종30년 12월 갑자(12일)			춘추로 불당관리
세종31년 1월 18일~21일			불당 중설 경찬회

둘째, 김수온은 1449년(세종 31년) 1월 5일에 형 신미의 덕으로 ‘守兵曹正郎’이 되었고,¹⁶⁾ 2월 25일에 지제교(知製敎)¹⁷⁾가 되었다.¹⁸⁾ □□사리영응기□□ 정근입장인명에는 김수온의 관직이 ‘承議郎¹⁹⁾ 守承文院校理’로 기록되었고, □□사리영응기□□ 본문 말미에는 관직이 ‘承議郎 守兵曹正郎 臣金守溫 謹記’이라 기록되었다. 이것은 김수온이 경찬회(12월 6일)에 참여했을 때의 관직이 종5품 승문원 교리였으며, □□사리영응기□□를 편찬할 때(다음해 4월경)의 관직이 종5품 병조정랑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상림원 체아직 중 사직(司直)과 사정(司正)은 1449년 1월 10일에 각각 관사(管事)와 전사(典事)로 바꾸었는데²⁰⁾ □□사리영응기□□ 정근입장인명 중 상림원의 관직명은 사직과 사정으로 기록되었다.

세종실록과 □□사리영응기□□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내불당의 경찬회는 1448년 12월 5일에 행해졌고, □□사리영응기□□는 1449년에 편찬되었음이 확실하다.

3. 상림원과 전악서

경찬회에 참여한 정근인은 모두 261명으로 그 구성을 보면, 僧侶 51명, 大君 6명, 內侍 32명, 文臣 9명, 西班雜織 9명, 賤人(樂工, 輿臺, 僕隸) 154명²¹⁾이다.

16) “민신(閔伸)을 병조 판서로, . . . 김수온(金守溫)을 수 병조 정랑(守兵曹正郎)으로 삼았다. 수온은 그의 형인 중 신미(信眉) 때문에 특별히 정조(政曹)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다.” 以閔伸爲兵曹判書, . . . 金守溫守兵曹正郎。守溫以兄僧信眉之故, 特命除政曹。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1월 5일(병술)

17) 조선시대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직.

18) “. . . 김수온(金守溫)을 수 병조정랑 지제교(守兵曹正郎 知製敎)로 삼았다.”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2월 25일(병자)

19) 조선 정6품 관계를 가리키는 말. 다음 국어사전, 엮과사전 백과사전.

20) “세자가 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 . . 근래에 상림원(上林園)의 벼슬을 더 설치하고, 또 산관(散官)의 이름과 분별하여 벼슬을 주나, 다만 그 사정(司正)과 사직(司直)의 이름은 유품과 같다. . . .’ 이계전이 여러 승지와 더불어 의논하여, 사직은 관사(管事)로, 부사직은 부관사로, 사정은 전사(典事)로, 부사정은 부전사로 고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子引見同副承旨李季甸曰: “. . . 近加設上林園之職, 且別其散官之號以授之, 但其司直司正之號, 與流品同. . . .” 季甸與諸承旨議: “請改司直爲管事, 副司直爲副管事, 司正爲典事, 副司正爲副典事。” 從之。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1월 10일(신묘)

21) 천인 154명 중 잡직에 속하는 천인 81명과 직책이 미상인 73명이 있으나, 직책 미상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천인으로 분류된 154명은 품계와 소속 및 직책 등급이 기록된 81명과 그러한 기록이 없는 73명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속을 밝힌 81명은 상림원 소속이 42명이고, 전악서 소속은 32명이며, 십이사(十二司)²²⁾ 소속은 7명²³⁾이다. 이 글에서 관심의 대상은 상림원과 전악서이므로 이 두 기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상림원

궁중에 사용되는 꽃과 과일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1392년(태조 1년)에 동산색(東山色)이란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1394년에 상림원(上林園)으로 명칭을 바꾼 후, 공조에 소속²⁴⁾되어 있었으며, 1466년(세조 12년)에 장원서(掌苑署)로 고칠 때까지 존속하였고, 경원(京苑) 외원(外苑)이 상림원에 딸려 있었다.²⁵⁾ 관원은 장원(掌苑) 1명, 별제(別提) 2명, 제조(提調) 1명을 두었으며, 그 밖에 체아직은 정5품 봉사교위·봉무교위, 종5품 승진교위·승공교위, 정6품 수입교위·수직교위, 종6품 신공교위·신과교위, 정7품 복효부위, 종7품 복근부위, 정8품 전공부위, 종8품 상공부위, 정9품 급사, 종9품 부급사²⁶⁾가 있었다. □□사리영응기□□에 보이는 상림원 소속 인원의 체아직 실제 직무는 종5품 사직(司直), 종6품 부사직(副司直), 종7품 사정(司正), 종8품 부사정(副司正), 정9품 급사(給事), 종9품 부급사(副給事)로 구분되고 있다. 각각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상림원은 창덕궁의 서북쪽 요금문(耀金門) 밖에 있었던 금원(禁苑)이며,²⁷⁾ 왕이 동궁으로 이어(移御)했을 때 동궁은 상림원으로 옮겨갔던 일²⁸⁾이나 상림원에

이 천인임을 알 수 있다. 이정주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 대부분은 하인이나 심부름꾼 등 악공보다 더 미천한 존재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정주, “세종 31년 刊 □□사리영응기□□ 소재 정근입장인 분석” □□고문서연구□□(서울:고문서학회, 2007), 제31호, 144쪽.

22) 1418년부터 문종때까지 있었던 군대의 편제. 조선 태조(太祖)는 1392년에 10위의 군대를 설치하였고, 1395(태조 4년)에 십사(十司)로 개편(改編), 1418년(태종 18)에 십이사(十二司)로 개편(改編), 문종 때 오사(五司)로 개편하였고, 1457년(세조 3)에 오위(五衛)로 고쳤다. 다음 한자사전 참조 정리.

23) 의흥시위사우령대장 1명, 호분시위사전령대장 1명, 호익시위사 1명, 응무시위사우령대장 1명, 응무시위사 1명, 용분시위사전후령섭대부 1명, 용무시위사전좌령섭대부 1명 이다.

24) 공조(工曹)에 속한 것은 ··· 상림원(上林園) ··· 등입니다.” 태종 5년 을유(1405, 영락 3) 3월 1일(병신)

25) 다음 한자사전. □□대전회통□□에 의하면, 주재관(主宰官)인 정6품 장원이 폐지되면서 종6품아문으로 되었으며, 관원으로 종6품 별제 2명, 종8품 봉사(奉事) 1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원(書員) 5명, 고직(庫直) 1명, 대청직(大廳直) 1명, 사령(使令) 4명, 대청군사 1명, 역인(役人) 12명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장원서는 각종 과목과 화초 재배를 관장하던 과원색(果園色), 배·밤·은행·석류·유자 등 생과일을 종묘에 올리고 생일이나 절일(節日)에 왕에게 진상하는 일을 하던 생과색(生果色), 꺾임·갓·호도·대추 등의 건과에 관한 일을 하던 건과색(乾果色), 공납된 미곡의 사용을 담당하던 작미색(作米色)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관장했다. 다음 국어사전.

26)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또 상림원의 직품(職品) 중에 산관(散官)도 역시 무반(武班)인 산관으로 제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무 실직(文武實職)의 품관들과 다름이 없어서 또한 온당하지 아니 하오니, 정5품 봉사 교위(奉事校尉)와 봉무 교위(奉務校尉), 종5품 승진 교위(承進校尉)와 승공 교위(承供校尉), 정6품 수입 교위(修任校尉)와 수직 교위(修職校尉), 종6품 신공 교위(慎功校尉)와 신과 교위(慎課校尉), 정7품 복효 부위(服效副尉), 종7품 복근 부위(服勤副尉), 정8품 전공 부위(典功副尉), 종8품 상공 부위(尙功副尉), 정9품 급사(給事), 종9품 부급사(副給事)는 예전대로 자급(資給) 없이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6년 갑자(1444, 정통 9) 윤 7월 5일(임오)

27)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금원이라는 것은 상림원(上林園)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울은 이에 합당치 않으며, 만약 울문에 의한다는 어귀만을 기재한다면 뒷사람들이 어느 울에 의거할지를 모를 것이다.” 上曰: “所謂禁苑, 如上林園之類也, 세종 13. 1. 4.

서 병의 쾌유를 빌었던 점²⁹)으로 보아 이곳은 아무에게나 개방된 곳은 아니었고, 꽃과 과일에 관련된 업무 외에 기우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열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상림원의 인사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각사의 장인에게 상림원의 직을 주었다는³⁰) 기록, 사옹원의 인원 일부를 상림원으로 예속 시킨³¹) 기록, 상림원 소속 관원을 여기 저기 파견하고 체아를 상림원에서 관장³²)하였다는 기록, 병조에서 상림원의 인사를 시행-管事(=司直) 5명, 副管事(=副司直) 3명, 典事(=司正) 9명, 副典事(=副司正) 10명, 給事 29명, 副給事 34명을 감원함-시행 하였다.³³)

나. 전악서

궁중의 조회와 연향 등에 사용하는 향악과 당악 연주를 위하여 1392년 7월 28일에 일반 유품과 구별된 잡직으로 설치되었다. 1458년에 아악서를 흡수하여 장악서로 개편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1405년 당시 예조에 소속³⁴)되어 있었고, 1392년 기록에 의하면 전악서의 관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³⁵), 관습도감의 지휘를 받았다.³⁶) 전악서에 녹봉을 받는 체아직은 중5품의 사성량 전악 1명, 중6품의 조성량 부전악 1명, 중7품 사협량 진율 4명, 중8품 조협량 부진율 5명,

28) <임금이> 동궁(東宮)으로 이어(移御)하고, 동궁은 상림원(上林園)으로 이거(移居)하였다. 移御于東宮。東宮移居上林園。세종 11. 1. 17.

29)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병이 심하매, 명하여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도(祈禱)·정근(精勤)을 베풀게 하였다.” 孝寧大君補病劇，命設祈禱精勤于上林園。세종 20. 7. 2

30) “병조에 전지하기를, ‘각사(各司)의 제색(諸色) 장인(匠人)과 상고(商賈)에 이름을 둔 자는 비록 양인(良人)에 속하더라도 대장(隊長)·대부(隊副)를 제수하지 말고 모두 상림원(上林園)의 직(職)을 주라.’” 傳旨兵曹：各司諸色匠人及籍名商賈者，雖系良人，勿授隊長隊副，並除上林園職。세종 27. 11. 9 .

31)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용 사변의 각품(各品) 내의 사직(司直) 4인, 부사직 4인, 사정(司正) 4인, 부사정 4인, 급사(給事) 8인, 부급사 8인은 그대로 계속 사용 제원의 벼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상림원(上林園)에 예속시켜서 공장, 잡기를 가진 자와 천인 등에게 제수(除授)하여 양천(良賤)을 구별하게 하십시오.” 세종 26년 갑자(1444, 정통 9) 윤 7월 5일(임오)

32)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공사 천구(公私賤口) 중에서 1백 근(斤) 무게의 활을 당기고, 놋쇠 그릇의 물이 마를 동안에 능히 2백 70보(步)를 달리든지 혹은 1백 근 무게의 활을 당기고, 2백 보를 보사(步射)하여 화살 3개 중에 1개를 맞힌 사람은 장용대(壯勇隊)라 일컫고, 본조(本曹) 및 오위 도진무(五衛都鎭撫)·훈련관 제조(訓練觀提調)가 취재(取才)를 자원하는 자에게 함께 시험을 보여서 1려(旅)를 뽑아 충무위(忠武衛)의 5부(部)에 분속(分屬)시키고, 각 1대(隊)씩 윤번(輪番)으로 입직(入直)하도록 하소서. 그 체아(遞兒)는 상림원직(上林園職)에 임용하여 . . . ” 세조 5년 기묘(1459, 천순 3) 9월 18일(정유)

33)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용관(冗官)을 도태하는데, 상림원(上林園)에서 관사(管事)를 5인 줄이고, 부관사(副管事)를 3인 줄이고, 전사(典事)를 9인 줄이고, 부전사(副典事)를 10인 줄이고, 급사(給事)를 29인 줄이고, 부급사(副給事)를 34인 줄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7월 12일(계유)

34) “예조(禮曹)에 속한 것은 . . . 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 . . . 등이고,” 태종 5년 을유(1405, 영락 3) 3월 1일(병신)

35)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 . . 문무(文武) 유품(流品)의 외에 별도로 . . .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를 설치하여 악공직(樂工職)으로 삼게 하니, 모두 그 산관(散官) 직사(職事)의 칭호를 다르게 하여 유품(流品)에 섞이지 않게 하였다.”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 28일(정미)

36)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관습 도감(慣習都監) 판사(判事) 정도전(鄭道傳)·왕강(王康)과 부판사(副判事) 정사척(鄭士偈)이 전악서(典樂署)의 무공방(武功房)을 거느리고 문덕(文德)·무공(武功)·몽금척(夢今尺)·수보록(受寶錄) 등 새 음악을 올렸다.” 태조 2년 계유(1393, 홍무 26) 10월 27일(기해)

종9품 조절랑 직을 6명으로 모두 17명이 있었다.³⁷⁾³⁸⁾ □□사리영웅기□□에도 전악서 소속 인원의 체아직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율, 직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악서의 위치는 알 수 없으며³⁹⁾, 전악서는 동반잡직에 해당하므로 인사는 이조(吏曹)에서 행사하였다.⁴⁰⁾ 체아직의 원액은 1431년에 16명, 1448년에 21명, 1457년에 16명으로 변동되었다.⁴¹⁾ 전악서의 체아직은 좌방과 우방에 약 절반 정도의 인원수가 배정되었으며,⁴²⁾ 16명~21명 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이며, 나머지는 녹봉 없이 근무하였다.

이상 상림원과 전악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림원은 공조 소속의 서반 잡직이며, 전악서는 예조 소속의 동반 잡직이다. 상림원이 관원과 체아로 구성된 것에 비해, 전악서는 관원 없이 체아만으로 구성되었다. 상림원의 체아직 수가 전악서의 체아직 수보다 많았으므로,⁴³⁾ 상림원의 체아는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의 장인에게 상림원의 체아직을 주기도 하였다. 전악서의 150명~300명 악공은 관습도감에서 시행하는 취재에 합격하더라도 20명 내외만 녹봉을 받을 수 있었고, 체아직 모두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⁴⁴⁾ 체아직을 받기 위하여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악서의 악공이 장인으로 인정되면 상림원 등의 서반직의 체아로 발령되었던⁴⁵⁾ 것이며, 나아가 동반잡직보다 서반잡직을 선호한 경향

37) “게다가, 성중관(成衆官)·상림원(上林園) · · · 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에 각각 녹관(祿官)이 있고,” 정종 2년 경진(1400, 건문 2) 4월 6일(신축)

38) “예조에서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의 관품(官品)을 상정(詳定)하였다. <아악서에는> 사성랑(司成郎) 전악(典樂) 1인인데 종5품이고, 조성랑(調成郎) 부전악(副典樂)이 1인인데 종6품이고, 사협랑(司協郎) 전율(典律)이 2인인데 종7품이고, 조협랑(調協郎) 부전율(副典律)이 3인데 종8품이고, 조절랑(調節郎) 직율(直律)이 4인인데 종9품이다. 전악서에는 전악·부전악이 각각 1인이고, 전율이 4인, 부전율이 5인, 직율이 6인인데, 그 관품(官品)과 낭계(郎階)는 모두 아악서와 같다.” 禮曹詳定雅樂署典樂署官品: 司成郎典樂一人從五品, 調成郎副典樂一人從六品, 司協郎典律二人從七品, 調協郎典律三人從八品, 調節郎直律四人從九品。典樂署, 典樂副典樂各一人、典律四人、副典律五人、直律六人, 其官品郎階, 竝同雅樂署。태종 9년 기축(1409, 영락 7) 윤 4월 7일(기유)

39) 성종 때 새로 지은 장악원은 태상시(太常寺) 동쪽 수십 보 떨어진 곳으로 위치는 한성부 서부 소속의 여경방에 있었다고 한다. **엠펙스 백과사전 장악원 조.**

40) 아악서와 전악서는 모두 예조에 소속된 기관이었고, 아악서의 인사를 이조에서 행사하였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전악서의 인사도 이조에서 행사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관리의 인사권은 이조와 병조에서 행사하였다. 세종 11년 3월 무진 기사 참조.

41) 송방송, “세종조의 아악서와 전악서”, 48쪽.

42) “체아직은 단지 향악에 8명과 당악에 8명뿐입니다.” 세종 16년 4월 무진.

43) 동반의 관직수 보다 서반의 관직수가 많았음은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 · 우리 조정은 동반(東班)이 관문하(判門下)·영삼사(領三司)에서 9품(品)까지가 5백 20여 원(員)이고, 서반(西班)이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에서 대장(隊長)·대부(隊副)까지가 4천 1백 70여 인이니, · · · ” 我朝東班, 自判門下、領三司至九品, 五百二十餘員, 西班自上、大將軍, 至隊長隊副, 四千一百七十餘人, 정종 2년 경진(1400) 4월 6일(신축)

44) 구임(久任) 제도에 의하여 20여명 체아가 모두 교체되는 것은 아니었다.

45) 정인지가 말하기를 “ · · ·신이 아뢰기를, ‘지금 아악서(雅樂署)에서 법제(法制)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즐겨 달려와서 무리가 5, 6백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컨대, 양인(良人)으로서 나이 많은 자 1백 사람을 뽑아서 무랑(舞郎)이라 호칭(號稱)하고 그들로 하여금 악을 익히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아악서의 직을 제수하면 반드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따로 군직(軍職)을 제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더니, 문

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상림원에 배정된 체아직의 원액(元額)이 전악서와 같은 기관의 체아직 원액(元額)보다 많았기 때문일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상림원의 체아직은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것에 비해 전악서의 악공은 궁중의 연향이 있을 때만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4. 상림원과 전악서의 악공

□□사리영응기□□에 기록된 전악서 소속의 악공은 32명이다. 그 밖에도 상림원 소속의 42명 중 11명, 액정서 소속의 32명 중 1명, 무소속의 73명 중 3명이 악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추가로 15명의 악공을 확인 할 수 있다.⁴⁶⁾ □□사리영응기□□에는 전악 2명, 악기 잡이가 45명, 죽간자 2명, 노래 10명, 집화 무동 10명 모두 67명이 동원되었으므로 확인된 47명 외에도 20명이 소속과 직책이 없는 인물 중에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확인된 47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등의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가. 상림원의 악공

□□사리영응기□□에 기록된 상림원 소속의 42명이 경찬회에서 꽃과 과일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상림원 소속의 2명이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음이 밝혀진 것으로⁴⁷⁾ 보아 나머지 40여명은 다른 일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문집의 기록에 의하여 金允山, 宋大平, 許吾, 宋田守, 李勝連, 金麗生, 黃孝誠, 柳雨, 金도티, 許恩, 金吉生 이상 11명이 전악서(후일 장악원)에 악공이었으며, 상림원에 소속된 악공이 있었음을 다음 <?>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사료 1>임금이 옮겨 여기고 말하기를, “이런 무리들로 동·서반의 직품을 받은 자도 또한 조반(朝班)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니, 판서 신상(申尙)이 대답하기를, “사옹원(司饗院)·사막원(司幕院)·상의원(尙衣院)·상림원(上林園)의 악공(樂工)과 도화원(圖書院)의 무리들은 모두 유품(流品)이 아니라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나, 그 나머지는 비록 공상(工商)·천례(賤隸)라 할지라도 동·서반의 직품을 받을 것 같으면 모두 조관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매,⁴⁸⁾

金允山은 1448년에 종5품인 承進校尉로서 행수법⁴⁹⁾에 의하여 종7품에 해당하

중계서 윤허(允許)하시고, . . . ” 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7월 9일(갑자)

46) 그 밖에도 정근입장인명에 245번째 기록된 金龍은 1458년 원종3등공신이며, 전악 또는 별감이었다고 하지만, 실록에서 악공 김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정주, “세종 31년 刊 □□사리영응기□□ 소재 정근입장인 분석” □□고문서연구□□(서울:고문서학회, 2007), 제31호, 157쪽 부록 참조.

47) 이정주, “세종 31년 간 □□사리영응기□□ 소재 정근입장인 분석” 151쪽의 72번 金南洽과 74번 姜升.

48) 上然之曰: “如此輩受東西班職者, 亦參朝班乎?” 判書申尙對曰: “司饗, 司幕, 尙衣院, 上林園樂工, 圖書院之輩, 皆非流品, 不得參班, 其餘雖工商賤隸, 若受東西職, 則竝參朝班矣.” 세종 12년 경술(1430, 선덕 5) 9월 7일(을사)

49) 새로 보임된 관직(官職: 實職)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行職)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한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는 上林園 副司正으로 있었으며, 경찬회에서는 전악(典樂)직을 수행⁵⁰⁾하였다. 다음 <?>·<?> 에 의하면 황주 관노(黃州官奴)였으며, 1455년 12월 27일에 원종 3등 공신으로 봉해졌고, 1456년 8월 13일에 공친의 신분에서 양인의 신분이 되었다. 1455년의 원종공신은 세조가 대군시절에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에게 공신의 칭호를 내려준 것⁵¹⁾으로, 김운산은 수양대군이 주관하였던 1448년의 경찬회에 참여하고 계유정난 때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공으로 원종공신에 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양인의 신분이 된 것은 원종공신 책봉 당시 공사천(公私賤)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라⁵²⁾는 세조의 명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사료 2-가>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 . . 행(行) 사악(司鑰) 한득경(韓得敬)·박춘미(朴春美)·허오(許吾), . . . 전악(典樂) 김쇄생(金灑生)·김치(金致), . . . 취라치(吹螺赤) 김처강(金處江), . . . 직율(直律) 허은(許恩), . . .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김운산(金允山)·송태평(宋太平)·전수(田壽), 관사(管事) 이승련(李勝連), 부전율(副典律) 김길생(金吉生), 전율(典律) 유우(柳雨), 직율(直律) 양망오지(梁忘吾之), 전악 도말생(都末生), . . . 재인(才人) 천우(天雨), . . . 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⁵³⁾

<사료 2-나>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 . . . **순천 관노(順天官奴) 허오(許悟)**, 의영고(義盈庫) 중 황중(黃衆) 개명(改名) 윤례(允禮)·**중 황효성(黃孝誠)**·도관(都官) 중 박오을미(朴吾乙未) 개명 춘미(春美)·중 김오을마지(金吾乙麻知) 개명(改名) 맹흥(孟興)·중[奴] 약수(若守) 개명(改名) 진치(陳治)·중[奴] 홍자경(洪自瓊)·중[奴] 윤덕생(尹德生)·중[奴] **송천수(宋天守) 개명(改名) 전수(田守)**·내자시(內資寺) 중 장주지(張住持) 개명(改名) 치손(治孫)·중[奴] 장말동(張末同)·내섬시(內膳寺) 중 수좌(壽佐) 개명(改名) 진수(陳壽)·중[奴] 현물금(玄勿金)·상림원(上林苑) 중 **김원만(金元萬) 개명(改名) 여산(麗山)**·중[奴] 함금생(咸今生)·통례문(通禮門) 중 홍중산(洪仲山)·덕녕부(德寧府) 중 차마로(車麻老)·**장흥고(長興庫) 중 모동(毛同) 개명(改名) 김동(金同)·황주 관노(黃州官奴) 김운산(金允山)·인순부(仁順府) 중 김치(金致)·사은서(司醞署) 중 김오을미동(金吾乙未同) 개명(改名) 여생(麗生)·고부 관노(古阜官奴) 도말생(都末生)·김해 관노(金海官奴) 우가응지(吾加應之) 개명(改名) 유우(柳雨)**·중[奴] 심말동(沈末同)·**충주 관노(忠州官奴) 김길생(金吉生)·남원 관노(南原官奴) 양망오지(梁忘吾之)** 등은 이제 원종 공신(原從功臣)이 되어 이미 영구히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름을 노적(奴籍)에서 삭제하라.” 하니, 또 전지하기를,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중[奴] 이승련(李勝連)**·중 김용수(金龍守),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璲)의 중 김금음동(金今音同),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의 중 내은동(內隱同), 중 홍지(洪智),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숙주(申叔舟)의 중 양질동이(梁叱同伊),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孳)의 중 김파지(金波智), 진무(鎭撫) 진선(陳善)의 중 개동(介同) 개명(改名) 효손(孝孫) 등이 이제 원종 공신(原從功臣)이 되어 이미 영구히 양(良)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공전(公賤) 중에 나이 서로 걸맞는 자로 충당하여 주라.”하였다.⁵⁴⁾

50) □□사리영응기□□ (□□한국불교음악사연구□□ 부록 20쪽, 3행)

51)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에 앉았는데, 잠저(潛邸)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 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무진)

52) “공사 천인(公私賤)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무진)

53) ○傳旨議政府曰：“ . . . 行司鑰韓得敬·朴春美·許吾 . . . 典樂金灑生·金致, . . . 吹螺赤金處江, . . . 直律許恩, . . . 典樂黃孝誠·金允山·宋太平·宋田壽·管事李勝連, 副典律金吉生, 典律柳雨, 直律梁忘吾之, 典樂都末生, . . . 才人天雨, . . . 等錄三等.”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무진)

宋太平은 실록과 문집 등에 송태평(太平)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리영응기 □□의 태평은 태평의 오기로 보인다. 1448년에 종5품인 承進校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종9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副給事였으며, 1455년 12월 27일에 원종 3등 공신으로 봉해질 당시 전악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448년과 1455년 사이에 전악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그 아들인 송전수⁵⁵⁾가 1456년 8월 13일에 공천의 신분에서 양인의 신분이 된 점으로 보아 송태평도 공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찬회에서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에 의하면 향비파의 명수였으므로, 경찬회 당시 향비파를 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3> 향비파(鄉琵琶)도 역시 당 나라 비파를 모방한 것으로, 그 설괘(設掛)에 있어서 현금과 같은 데 배우는 사람이 줄을 고르고 채를 통기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잘 타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다. 전악(典樂) 송태평(宋太平)이 잘 탔는데, 그 타는 법을 배운 아들 송전수(宋田守)는 더욱 절묘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백씨(伯氏) 덕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마고(麻姑)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아 연이어 듣고 싶고 싫증이 나지 않았으나, 도선길(都善吉)에 비하여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송전수 이후로는 오직 도선길이 송태평에 가까웠을 뿐 그 밖의 사람은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이것을 능히 하는 사람이 없다.⁵⁶⁾

許靚은 <?, ?>에 의하면 1448년에 종5품인 承進校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정7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司正으로 있었고, 1455년에 원종 3등공신이 되었다. <?>의 기록에 양인이 된 사람은 ‘순천 관노(順天官奴) 허오(許悟)’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는 원종공신 허오(許靚)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허오(許悟)는 허오(許靚)의 오기이다. 따라서 허오는 본래 순천에 소속된 관노였으며, 1456년에 양인의 신분이 되었다. 경찬회에서의 역할을 알 수 없으나, <?>와 <?>에 의하면 적(笛)을 잘 불었다는 기록이 있고, <?>에 의하면 가야금에도 명수(名手)였던 것으로 보인다. 1448년 경찬회 당시 가야금보다는 적(笛)을 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4-가>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여기(女妓) 금강(金剛)은 원종공신(原從功臣) 허오(許靚)의 예(例)에 의거하여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라.”⁵⁷⁾

<사료 4-나> 일찍이 달밤에 세조가 영인(伶人) 허오(許靚)에게 지시하여 적(笛)으로 계면조(界面調) 【우조(羽調)를 세속에서는 계면조(界面調)라 이른다.】 를 불게 하였더니, 이를 듣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⁵⁸⁾

<사료 4-다> 김유(金紉)⁵⁹⁾ 자고(子固)는 말하기를, “나는 . . . 아름다운 손님과 좋은 친구를 맞아 술

54)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8월 13일(경술)

55) “전악(典樂) 송태평(宋太平)이 잘 탔는데, 그 타는 법을 배운 아들 송전수(宋田守)는 더욱 절묘하였다.” □□용제총화□□ 제1권.

56) 鄉琵琶亦倣唐琵琶。其設掛則與玄梨同。其調絃撚撥。學者難之。不善鼓則不堪也。有典樂宋太平善彈。其子田守傳得其法尤妙絕。余少時在伯氏家聽其聲。如麻姑爬癢。靡靡不厭。然比諸都善吉則不及也。然田守而下。惟善吉近之。其他則不可及也。今則無能之者。□□용제총화□□ 권1.

57) 傳旨刑曹曰：“女妓金剛，依原從功臣許靚例，免賤。” 1466년(세조 12년) 6월 27일.

58) 世祖敎伶人許靚笛界面調(羽調俗謂之界面調) 聞者莫不哀傷. 세조실록 1권 1a14-1b8. (충서 3번째 기사.)

59) 김유(1420-1490이후). 자고는 호임.

통을 열고 술자리를 베풀어 이마지(李尒知)가 타는 거문고와 도선길(都善吉)의 당비파(唐琵琶)와 송전수(宋田守)의 향비파(香琵琶)와 허오(許吾)가 부는 적(笛)과 가홍란(駕鴻鸞)과 경천금(輕千金)의 창가로 황효성(黃孝誠)이 옆에서 지휘하고, 독주하기도 하고 합주하기도 하며 이때에 손님과 더불어 술을 부어 서로 주고받으며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 짓는 것이 나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하였다.⁶⁰⁾

<사료 4-라> 가야금은 황귀존(黃貴存)이란 사람이 잘 탄다고는 하나 나는 아직 듣지 못했으며, 또 김복산(金卜山)이 타는 것을 듣고 그 당시 탄복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역시 매우 질박(質樸)하다. 조금 오래 전에 노녀(老女) 조이[召史]가 공후(公侯)의 집에서 쫓겨나와 비로소 그 소리를 퍼뜨렸는데, 그 소리가 요묘(要妙)하여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하였고, 이마지도 웃음을 여미고 자기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정범(鄭凡)이 장님 가운데서 가장 잘 탄다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종조(世宗朝)에 허오(許吾)란 사람이 있었고, 이어서 이승련(李勝連)·서익성(徐益成)이 있었다. 이승련은 세조(世祖)에게 알려져 군직(軍職)을 배수하였고, 서익성은 일본에 가서 죽었다.⁶¹⁾

宋田守는 전악을 지낸 송태평의 아들⁶²⁾로, 본명은 송천수(宋天守)였으며, 전수로 개명하였다. 1448년에 종6품인 愼功校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종9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副給事 직에 있었으며, 도관(都官)⁶³⁾의 노비였다. <?>의 원종공신 기록에는 송전수가 보이지 않고, <?>의 기록에는 원종공신으로 양인이 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태평 다음에 보이는 전수(田壽)가 전수(田守)의 오기가 아닐까 한다. 직책을 다시 주었다는 <?>의 기록에 의해 단종 2년 이전에 직책을 빼앗겼던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 의하면 당비파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第一手]으나, <?>과 <?>에 의하면 향비파의 명수였고, 아버지 송태평도 향비파에 종사한 점으로 미루어 경찬회에 편성된 향비파 2명은 송태평과 송전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5-가> 이조에 전지하기를 “... 송전수·송승전 ... 등의 고신을 환급하도록 하라.” 하고,⁶⁴⁾

<사료 5-나> 당비파에는 역시 송전수가 제일수(第一手)인데, 도선길이 그와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요즘은 능숙한 영인(伶人 악공)이 많이 있는데 사서인(士庶人)은 악(樂)을 배울 때에 반드시 비파를 먼저 한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사람은 없고 다만 김신번(金臣蕃)이라는 사람이 도선길의 지법(指法)을 모두 배워 호방함에 있어서는 도선길보다 나으니, 역시 지금의 제1수라 할 것이다.⁶⁵⁾

李勝連은 1448년에 정7품인 服効副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종9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副給事였다. 상림원의 다른 악공들이 공천이었던데 비해, 이승련은 <?>과 <?>에 의하면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노비로서, 1455년에 관사(管事)⁶⁶⁾ 직책에 있으면서 원종 3등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양인이 되었다. <?>

60) 金紐子固曰。予則不欲歷訪友人。予家足以容客。予財足以辦宴。每於花朝月夕。邀佳賓良朋。開樽置酒。李尒知彈琴。都善吉唐琵琶。宋田守鄉琵琶。許吾吹笛。駕鴻鸞輕千金唱歌。黃孝誠從旁指揮。或獨奏或合奏。於是與客酌酒相酬。縱談占聯。此予所樂也。□□용재총화□□ 제10권.

61) 伽耶菜[琴]則有黃貴存者善彈。余未及聽。又聽金卜山之彈。當時服膺而不能已。以今觀之。則亦太質直也。近有老女召史者。自公侯家謫出。始播其音於外。其音要妙。人無與敵。尒知斂衽自以爲不能及。今有鄭凡者。盲中之最善彈。膾炙於世大矣。世宗朝有許吾。繼有李勝連徐益成。勝連遇知於世祖。拜軍職。益成往日本而死。□□용재총화□□ 권1.

62) 전악(典樂) 송태평(宋太平)이 잘 탔는데, 그 타는 법을 배운 아들 송전수(宋田守)는 더욱 절묘하였다.

63) 고려 때, 노비(奴婢)의 문서(文書)와 호적(戶籍), 소송(訴訟)을 맡아보던 형부(刑部)의 소속(所屬) 관아(官衙)

64) 단종 2. 2월19일(경자)

65) 唐琵琶則田守亦爲第一手。善吉與之齊名。今之伶人多有能者。至如土庶。學樂必先琵琶。然無有拔萃者。惟金臣蕃盡得善吉指法。而豪縱過之。亦今之第一手也。□□용재총화□□ 권1.

66)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영흥부(永興府)의 도무사(都務司), 평양부(平壤府)·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

에 의하면 세조에게 군직을 받았으며,⁶⁷⁾ 가야금의 명수였다. 이승린은 경찬회에서 가야금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金麗生은 <?>에 의하면 본명이 김오을미동(金吾乙未同)였으며, 여생(麗生)으로 개명하였다. 1448년에 정7품 服勤副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정9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給事였다. 사운서(司醞署)⁶⁸⁾의 노비였으며, <?>에 기록된 전악(典樂) 김쇄생(金灑生)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에 의하면 김여생은 1454년 이전에 전악을 지냈고, 관직을 빼앗겼다가 1454년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1455년에 원종 3등공신이 되었다.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 수 없다.

<사료 6> 또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 김여생(金麗生) ...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하였다.⁶⁹⁾

黃孝誠은 1448년에 정8품 典攻副尉로서 종7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副司正이었다. <?>과 <?>에 의하면 1462년에 이미 전악서의 전악이었으며, <?>부터 <?>까지 기록에 의하면 아악서와 전악서가 장악원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전악 또는 전악령으로 있었고, 1489년까지도 전악으로 활동하였다. 다만 전악령이란 직책이 보이고, <?>에 보이는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종3품 직인데, 황효성이 맡은 전악이 전악서에서 종5품이었고, 장악원에서 정6품직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한 직책 명칭이 아닌가 한다. 황효성은 <?>과 <?>에 의하면 본래 의영고(義盈庫)⁷⁰⁾의 노비였으며, 1455년에 원종 3등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양인이 되었다. <?>·<?>에 의하면 황효성은 음악의 이론에도 밝아 1464년에 조희음악의 악보를 만들었으며, 1486년에 아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악의 악보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 의하면 황효성을 음악의 근본을 깨닫고 잘 활용하였으며, 완급을 알아서 악보를 짓기도 하였다. 타고난 자질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악기 연주에는 큰 명성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에 의하면 허오, 송전수와 같은 악공의 연주에 지휘하거나, 종묘의 부묘(祔廟)와 친경(親耕)에서도 전악의 직책으로서 악공을 지휘하였다.

<사료 7-가>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을 불러 물기를, “여기(女妓)는 어찌하여 재주를 이룬 자가 없는가?”하니, 황효성이 아뢰기를, “도감(都監)의 관리(官吏)가 늘 사람들에게 빌려 주니, 습악(習樂)할 겨를이 없는 까닭으로 재주를 이룬 자가 없습니다.”하니,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악학 도감(樂學都監)의 관리를 핵심하도록 하라.”하였다.⁷¹⁾

<사료 7-나>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위장(衛將) 이윤손(李允孫)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악학 제조(樂學提調)가 되었으니 음악을 아는가? 조회(朝會) 때의 음악이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연주해야 할 것인가?” 하니, 이윤손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을 불러 악보(樂譜)를 그려서 올리게 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이를 듣고는 아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용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영작서(營作署)에 달린 동반(東班) 정8품(正八品)의 토관(土官) 벼슬.

67) 세조 때 받은 군직이 관사로 보임.

68)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술과 감주 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69) 단종 2년 갑술(1454, 경태 5) 2월 19일(경자)

70)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기름, 꿀, 황랍(黃蠟), 소물(素物), 후추 등의 물품의 관리를 맡던 관청이다.

71) 세조 8년 임오(1462, 천순 6) 3월 27일(임술)

래 사일절(四一節)을 더 늘도록 하여 익혀서 연주하게 하였다.⁷²⁾

<사료 7-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하기를, “선농제 . . . 전악령(典樂令) 황효성(黃孝誠), . . . 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匹)을 내려 주라.” 하였다.⁷³⁾

<사료 7-라>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를 종묘(宗廟)에 부묘(附廟)하였을 때의 수조관(受俎官)인 사옹원 판관(司饗院判官) 이에전(李禮全)과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에게 아마(兒馬)를 각각 1필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⁷⁴⁾

<사료 7-마> 장악원 전악(掌樂院典樂) 황효성(黃孝誠)이 와서 아뢰기를, “□□주례(周禮)□□의 춘관(春官) 대사악(大司樂)에 이르기를, ‘우릇 악(樂)은 원종위궁(圓鍾爲宮)·황종위각(黃鍾爲角)·태주위치(太簇爲徵)·고선위우(姑洗爲羽)로 연주(演奏)하여 악(樂)이 여섯 번 변(變)하면 천신(天神)이 모두 내려오므로 예(禮)를 올릴 수 있고, 함종위궁(函鍾爲宮)·태주위각(太簇爲角)·고선위치(姑洗爲徵)·남려위우(南呂爲羽)로 연주하여 악(樂)이 여덟 번 변하면 지기(地祇)가 모두 나오므로 예(禮)를 올릴 수 있으며, 황종위궁(黃鍾爲宮)·대려위각(大呂爲角)·태주위치(太簇爲徵)·응종위우(應鍾爲羽)로 연주하여 악(樂)이 아홉 번 변하면 인귀(人鬼)에 예(禮)를 올릴 수 있다.’ 하였는데, 제사(祭祀)의 악(樂)에는 상성(商聲)을 쓰지 않고 다만 궁(宮)·각(角)·치(徵)·우(羽) 4성(聲)만 씁니다. 지금은 각(角)·치(徵)·우(羽)를 쓰지 않으면서 4조(調)에서 모두 궁성(宮聲)을 쓰니, 음양(陰陽)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신(降神)하는 악(樂)은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지금의 악(樂)을 쓰는 것은 그릇된 곳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옛날 악보(樂譜)를 가지고 참작(參酌)하여 개정(改正)하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채수(蔡壽)와 홍문관원(弘文館員)으로 음률(音律)을 이해하는 자를 불러서 묻게 하니, 채수 등이 아뢰기를, “황효성(黃孝誠)이 아뢴 것은 모두 □□율려신서(律呂新書)□□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악(樂)으로써 참고(參考)해 보면 지금의 악(樂)은 과연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황효성이 현상(絃上)의 악(樂)을 가지고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에다 군(君)·신(臣)·민(民)·사(事)·물(物)을 비하여, 신현(臣絃)은 군현(君絃)을 범할 수 없으니, 궁(宮)은 스스로 궁(宮)이 되고 상(商)은 스스로 상(商)이 되어야 가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비록 옳기는 하지마는, 같은 현(絃) 중에서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급하기도 하여 음운(音韻)이 그에 따라서 변해 지는데, 어찌 군(君)·신(臣)·민(民)·사(事)·물(物)을 알겠습니까? □□율려신서(律呂新書)□□의 주(註)에 이르기를, ‘제사(祭祀)의 악(樂)은 상성(商聲)을 쓰지 않고 다만 궁(宮)·각(角)·치(徵)·우(羽) 4성(聲)만 있으니, 이른바 상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곡절(曲節)에 쓰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곧 제사에는 부드러움[柔]을 숭상하는데, 상성(商聲)은 견강(堅剛)하여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례(周禮)□□의 인귀(人鬼)에 제사하는 악(樂)으로 말할 경우 황종위궁(黃鍾爲宮)·대려위각(大呂爲角)·태주위치(太簇爲徵)·응종위우(應鍾爲羽)하니, 이것은 4성(聲)이 각각 스스로 기초(起調)하는 것이지, 다만 궁(宮)만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본국(本國)의 악(樂)은 4성 모두가 궁(宮)으로써 기초(起調)되는데,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율(律)이 열 둘 있는데, 다만 황종(黃鍾)·대려(大呂)·태주(太簇)·응종(應鍾)을 들어 4성으로 삼아 이를 쓰는 것은 □□주례(周禮)□□ 대사악(大司樂)의 주(註)로써 상고해 보건대, ‘인궁(人宮)은 황종(黃鍾)인데 황종은 임종(林鍾)을 하생(下生)하고, 임종은 지궁(地宮)인 까닭으로 이를 피하고, 임종은 태주(太簇)를 상생(上生)하고 태주는 남려(南呂)를 하생(下生)하는데, 남려는 천궁(天宮)의 양(陽)과 같은 자리이므로 또 이를 피하고, 남려는 고선(姑洗)을 상생(上生)하는데 고선은 남려의 하(下)이므로 또 이를 피하고, 고선은 응종(應鍾)을 하생(下生)하고, 응종은 유빈(蕤賓)을 상생(上生)하는데, 유빈은 지궁(地宮)인 임종(林鍾)의 양(陽)이므로 또 이를 피한다.’고 하였으니, 임종·남려·고선·유빈은 인귀(人鬼)에 제사하는 데 모두 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초(起調)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시용악(時用樂)은 황종위궁(黃鍾爲宮)이 □□주례(周禮)□□와 같고, 그 나머지 3성(聲)은 중려(仲呂)·남려(南呂)·이척(夷則)이 각각 스스로 궁(宮)이 되어서 대려위각(大呂爲角)·태주위치(太簇爲徵)·응종위우(應鍾爲羽)로 기초(起調)를 삼지 아니하는데, 또한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황효성(黃孝誠)이 아뢴 바

72) 세조 10년 갑신(1464, 친순 8) 1월 27일(경진)

73) 성종 6년 을미(1475, 성화 11) 1월 25일(을해)

74) 성종 16년 을사(1485, 성화 21) 6월 6일(을유)

는 모두 □□율려신서(律呂新書)□□에 의거한 것으로 억측[臆度]의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악제(時用樂制)를 만들 때에 □□율려신서□□를 쓰지 아니하고 별도로 다른 악서(樂書)에 의거한 듯하지만, 가령 다른 악서로서 의거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율려신서(律呂新書)□□는 곧 채원정(蔡元定)이 주회암(朱晦庵)[朱子]과 더불어 여러 책들을 모아 가지고 이를 증명하고 분변(分辨)해서 만세(萬世)의 준정(準程)이 되게 한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저것에 의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려신서(律呂新書)□□는 예악(禮樂) 중 □□성리대전(性理大全)□□에 편입(編入)시킨 다음에 본국(本國)에 유포(流布)되었으니, 시용악제(時用樂制)를 만들 때에는 아마 미처 보지 못했을 듯합니다.” 하였다.⁷⁵⁾

<사료 7-바>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을 불러 황효성(黃孝誠)이 계달한 악보(樂譜)의 개정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滄)·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정괄(鄭括)·권찬(權攢)·신승선(愼承善)·김승원(金崇元)·유지(柳軫)·이덕량(李德良)·이경동(李瓊全)·오순(吳純)·김극유(金克丑)·권중린(權仲麟)·민영견(閔永肩)·윤해(尹垓)·봉원효(奉元孝)·최관(崔灌)·성희증(成希曾)은 의논하기를, “세종(世宗)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왕으로서 음률(音律)에 밝게 통하시어, 예악(禮樂)을 제작한 것이 지극히 밝게 갖추어졌습니다. 그 때 박연(朴堧)도 음악에 정통하여 품지(稟旨)하여 제작한 것이 극진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어찌 근거한 바가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황효성의 말을 가지고 조종(祖宗)의 제작한 것을 가볍게 변할 수 없습니다. 채수(蔡壽) 등은 단지 □□주례(周禮)□□·□□율려신서(律呂新書)□□만 상고하고 역대(歷代) 악지(樂志)와 여러 악서(樂書)는 상고하지 못하였으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김승경(金升卿)·유순(柳洵)·한언(韓堰)·김수손(金首孫)·허황(許璜)·김호(金浩)·황정(黃玎)은 의논하기를, “본조(本朝)에서 쓰는 3악(樂)은 세종(世宗)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때 박연이 음률에 정통하여 옛 제도를 자세히 참작해서 하였으니, 한 영관(伶官)의 말로써 가볍게 옳고 그름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⁷⁶⁾

<사료 7-사>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 . . 그리고 친경(親耕) 때 좌통례(左通禮) 윤탄(尹坦), 우통례(右通禮) 허계(許誠), 사복시 정(司僕寺正) 강귀손(姜龜孫),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이증문(李曾門), 적전령(籍田令) 백훈(白勳), 봉청상관(奉靑箱官) 김화(金澣), 기음령(畿邑令) 노호신(盧好愼)·이윤(李掄)·이종연(李宗衍), 협시(夾侍) 김조(金祚)·이성(李暹), 정의(正衣) 김수정(金粹正)·이당(李瑄), 전악령(典樂令) 황효성(黃孝誠), 기민(耆民) 민기(閔沂) 등은 대가(代加)하고,⁷⁷⁾

<사료 7-아>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하다가 ‘사십팔성도(四十八聲圖)’에 이르러, 정랑(正郎)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예기(禮記)□□에, 오음(五音)을 군(君)·신(臣)·민(民)·사(事)·물(物)의 뜻으로 삼았고, 순(舜)임금도 말하기를, ‘내가 오성 육률(五聲六律)을 듣고서 치훈(治忽)을 살피고자 한다.’고 하였고, 계찰(季札)이 주(周)나라 악(樂)을 듣고 또한 치란 흥망(治亂興亡)의 일을 알았으니, 대개 정치의 득실(得失)을 성률(聲律)에 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에게 물으니, 황효성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유사눌(柳思訥)의 말로써 당월(當月)의 율(律)을 썼다가 뒤에 폐하였는데,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폐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당월의 율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썼었습니다.” 하였다.⁷⁸⁾

<사료 7-자>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이 제조(提調)로서 장악원(掌樂院)에 있으면서 보건대, 성률(聲律)의 학문이 매우 어렵지 않은데도 악공(樂工)중에 한 사람도 취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황효성(黃孝誠)·박근(朴根)만은 음률(音律)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황효성은 이미 늙었고, 두 사람 외에는 전해 익힐 자가 없어, 지극히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첩자(妾子)들 중에서 슬기롭고 빼어난 자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사신이 북경(北京)에 갈 때 따라가서 중국의 아악(雅樂)을 익히게 하소서. 지금 살펴보니, 조관(朝官) 중에 정운(鄭運)과 신말평(申末平)이 또한 음률(音律)을 해득하

75) 성종 17년 병오(1486, 성화 22) 4월 14일(기축)
 76) 성종 17년 병오(1486, 성화 22) 11월 6일(정미)
 77)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윤 1월 25일(경인)
 78) 성종 20년 기유(1489, 홍치 2) 3월 10일(무진)

니, 청컨대 전심하여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⁷⁹⁾

<사료 7-차> 대개 악(樂)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5음 12율의 근본을 알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절주(節奏)의 완급(緩急)을 알아서 악보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타고난 자질이 요묘(要妙)하고 손끝이 정밀한 경우가 있다. 황효성(黃孝誠)은 근본을 깨닫고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완급을 알고 악보를 많이 지어 세조(世祖)에게 알려져 관직이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르렀다. 지금 박근(朴根)은 금천군(錦川君)의 서자인데, 어려서부터 악(樂)을 배워서 영인(伶人)은 아니라 하더라도 악사(樂事)의 일을 잘 맡아 했는데, 그 재주는 황효성보다 나아 한때 선사(善師)가 되었고, 배우는 사람이 그 문하에 모여 들어 많은 선수(善手)들을 배출하였으니, 역시 지금의 제1품이다.⁸⁰⁾

유우(柳雨)는 <?>에 의하면 본명이 우가응지(汚加應之)였으며, 유우(柳雨)로 개명하였다. 1448년에 정8품 典攻副尉로서 행수법에 의하여 종9품에 해당하는 上林園 副給事였다. 1455년에 전악서의 전율직에 있으면서 원종 3등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김해 관노(金海官奴)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다. 다른 사료가 없어서 그가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 수 없다.

김도티의 도티[돋]는 돼지(도야지)라는 의미⁸¹⁾이며, 도티의 현재 발음은 구개음화에 의하여 도치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에 보이는 거벽 아쟁으로 추대된 김도치(金都致)와 동일인므로, 김도티[金都致]는 성종당시까지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1455년 당시 원종공신 명단과 1456년의 양인 신분 관련 기록에 보이지 않으며,⁸²⁾ 관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리영웅기□□에 기록된 軋箏은 아쟁이며, 경찬회에서 김도티[金都致]는 上林園 給事로서 알쟁[아쟁]을⁸³⁾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 8> 지금 김도치(金都致)란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80을 넘었는데도 소리가 약하지 아니하여 거벽(巨擘) 아쟁(牙箏)으로 추대하였다.⁸⁴⁾

許恩은 1448년에 품계는 없이 정9품인 上林園 給事였으며, 1455년에 전악서의 直律로 원종3등공신이 되었다. <?>에 면천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인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찬회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없다.

金吉生은 1448년에 품계 없이 정9품인 上林園 給事였으며, 1455년에 부전율로 원종 3등공신이 되었다. <?>에 의하면 신분은 충주 관노(忠州官奴)였으나 1456년에 원종공신으로 양인의 신분이 되었다. 경찬회에서의 역할은 알 수 없다.

79) 성종 20년 기유(1489, 홍치 2) 4월 12일(경자)

80) 성현, □□용재총화□□ 권1.

81) ‘도티는 돼지의 합경도 방언.’ 네이버국어사전. ‘옛사람들 이름에 도야지 또는 대야지, 도지, 도치(도티) 등의 이름을 더러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돼지라는 뜻을 지닌다.’ □□월간산□□ 444호 (2006. 10) “백두대간 대장 정 제22구간/갈전곡봉-지명” 정상훈은 도티는 ‘돋[豚]+이’이며 ‘식성이 좋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보았다. 정상훈, “갑인자본 □□사리영웅기□□에 대하여;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제7집, 101쪽.

82) 왕조실록에 김도치라는 이름이 보이는 하지만, 죄수 또는 나이가 다르게 보이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83) 又樂書. 唐有軋箏. 以片竹軋之. 名軋箏. 蓋今俗所謂軋箏也. 지봉유설, 권18. 기예부 중 음악. 악학궤범에도 아쟁 항에서 알쟁을 소개하였다. 악학궤범 권7.

84) 今有金都致. 年過八十 而聲猶不衰 椎爲巨擘牙箏 □□용재총화□□ 권1.

이상 경찬회에 참여한 상림원 악공 11명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경찬회에 참여한 상림원 악공

	품계	직책 명	이름	공신/ 직책/ 비고	경찬회 역할	번호 ⁸⁵⁾
1	承進校尉	行 上林園 副司正	金允山	공신/ 전악		83
2	承進校尉	行 上林園 副給事	宋大平	공신/ 전악	향비파	84
3	承進校尉	行 上林園 司正	許吾	공신/ 사악	笛	85
4	愼功校尉	行 上林園 副給事	宋田守	공신/ 전악	향비파	96
5	服効副尉	行 上林園 副給事	李勝連	공신/ 관사	가야금	103
6	典攻副尉	行 上林園 副給事	金麗生	공신/ 전악		120
7	典攻副尉	行 上林園 副司正	黃孝誠	공신/ 전악/악보지음		128
8	典攻副尉	行 上林園 副給事	柳雨	공신/ 전율		130
9		上林園 給事	金도티	/ /金都致	알쟁(=아쟁)	156
10		上林園 給事	許恩	공신/ 직율		157
11		上林園 給事	金吉生	공신/ 부전율		158

나. 전악서의 악공

1448년 경찬회에 참여한 전악서의 악공은 종5품 전악이 2명, 종6품 부전악이 2명, 종7품 전율이 9명, 종8품 부전율이 9명, 종9품 직율이 10명으로 모두 32명이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등을 통하여 인물별로 살펴보고 그들이 경찬회에서 담당할 역할을 추정해 보겠다.

黃貴存은 1448년 경찬회에서 전악으로 활동하였으며, <?>에 의하면 가야금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다. 황귀존은 1448년 당시 종5품의 사성랑(司成郎)⁸⁶⁾으로서 전악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었으며, 전악서를 떠나 내시부의 사알(司謁)이 되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에 붙잡혀서 10월 11일에 강계의 종이 되었다가, 10월 13일 하삼도로 옮기고, 17일 고신이 추탈되고, 11월 11일 가산 적물, 28일 교형(絞刑) 당하였다.⁸⁷⁾ <?>에 보이듯이 1791년에 장릉 배식단에 배향되었다. 경찬회에서 그의 전공인 가야금을 담당하였다기 보다는 악공을 거느리고 음악 연주에 필요한 집박 또는 집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9-가> 장령(掌令) 하위지(河緯地)가 인하여 아뢰기를, “안송선(安崇善)은 일찍이 중한 죄에 좌죄(坐罪)되었는데, 갑자기 고신(告身)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니, 청컨대 도로 거두소서. 사알(司謁) 황귀존(黃貴存)은 지난 번에 안장(鞍粧)이 규제를 넘었으므로 본부에서 탄핵하였는데, 국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었으니, 간사한 소인의 무리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뒤에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컨대 국문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올린 글은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경전(經傳)에 실린 것은 정사에 임하여 혹 잊어버리어 일상 행하는 일에 과오를 일으키기 쉬우니, 너희들의 글을 내가 항상 보겠다. 안송선(安崇善)은 끝내 서용(敍用)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요, 또 공신(功臣)의 자손이며, 세종

85) □□사리영웅기□□ 정근입장인명에 기록된 순서를 일련번호로 정리한 수자임. <표2>와 <표3>의 번호도 같음.

86) 사성랑(司成郎)은 전악서의 전악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세조 이전 전악서에서는 종5품이었고, 장악원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정6품이었다. 다음국어사전.

87) 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0일, 11일, 13일, 17일, 11월 11일, 28일 기사 참조

(世宗)께서 일찍이 그 집에 거동하시어 바치는 물건을 받아들여도록 허락하시었으니, 지금 고신(告身)을 주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황귀존(黃貴存)의 범한 것은 작은 일이니, 어찌 꼭 추국(推鞠)해야 하느냐?”하였다. 하위지가 두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택하지 않았다. 올린 글이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말이 풍부하므로, 명하여 한 통을 써서 바치게 하여 때때로 읽어보기를 더하였다. 그러나 시폐(時弊)를 말한 것이 없어, 비방하는 사람이 혹 있었다.⁸⁸⁾

<사료 9-나> 상호군(上護軍) 이효지(李孝智)·선공감 정(繕工監正) 최중겸(崔仲謙)·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송처검(宋處儉)·사선서 령(司膳署令) 홍연(洪演)을 의금부(義禁府) 가정 낭관(加定郎官)으로 삼고, 지정(池淨)을 영암(靈岩)에, 정분(鄭芬)을 낙안(樂安)에, 조수량(趙遂良)을 고성(固城)에, 이석정(李石貞)을 영일(迎日)에, 안완경(安完慶)을 양산(梁山)에 안치(安置)하고, 또 백호(百戶)를 보내어 한송(韓崧)을 여연(閔延)에, **황귀존(黃貴存)을 강계(江界)에 압송(押送)하여 종으로 만들었으니**, 모두 이용(李瑬)의 당(黨)이었다.⁸⁹⁾

<사료 9-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 . . . 한송(韓崧)과 **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하였다.⁹⁰⁾

<사료 9-라> 정단(正壇)에 배식한 사람은 32인 . . . 연좌되어 죽은 사람은 1백 90인이었다. 【 . . . 사알(司謫) **황귀존(黃貴存)**, . . . 환관 김연(金衍)·**김대정(金大丁)** . . . 】⁹¹⁾

金達磨는 1448년 경찬회에 전 전악의 직책으로 참여하였다. 김달마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 보이지 않아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종5품의 사성량으로서 전악을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황귀존보다 조금 앞서

88) 문종 즉위년 경오(1450, 경태 1) 7월 5일(정미)

89) 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0월 11일(갑오)

90) 단종 1년 계유(1453, 경태 4) 11월 11일(계해)

91) 正壇配食三十二人: 【安平大君章昭公瑢、錦城大君貞愍公瑜、和義君忠景公瓔、漢南君貞悼公晷、永豐君貞烈公瑒、判中樞院事李穰、礪良府院君忠愍公宋玟壽、禮曹判書忠莊公權自慎、寧陽尉獻愍公鄭悰、敦寧府判官權完、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莽、吏曹判書忠貞公閔伸、兵曹判書趙克寬、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都摠府都摠管忠肅公成勝、贈兵曹判書行別雲劍忠強公朴晴、刑曹判書文愍公朴仲林、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簡公李塏、贈吏曹判書行禮曹參判忠烈公河緯地、贈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贈兵曹判書行都摠府副摠管忠穆公俞應孚、贈司憲府持平河珀、左參贊貞簡公許詔、集賢殿修撰許槩、贈吏曹參判朴季愚、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都鎮務鄭孝全、贈工曹參判寧越府戶長嚴興道。】別壇一百九十八人。 事未詳八人: 【平安監司趙遂良、忠清監司安完慶、繕工監副正李命敏、山陵掌務李賢老、刑曹正郎尹鈴孫、吏曹佐郎沈愼、安岳郡事黃義軒、高陽縣監高德稱。】坐收司一百九十人: 【知部金承珪、宜春君友直、德陽君友諒、參判皇甫錫、兵使趙崇文、僉知中樞院事李石貞、司諫院獻納李承胤、鎮撫元矩、鍾城府使李耕畷、成均館司藝趙衷孫、軍器判事尹處恭、直長金承璧、直長皇甫欽、高陽縣監朴夏、軍器錄事趙藩、李承孝、閔甫昌、閔甫釋、尹涇、尹涓、尹濯、尹湜、李乾金、李乾玉、李乾鐵、李白金、李秀同、趙香同、趙貴同、金晶、河石、李保仁、李差、金末生、安莫同、梁玉、崔老、金尙志、高廉石、趙石岡、朴以寧、皇甫加磨、皇甫京斤、金金木壹、金祖同、金壽同、李繼祖、李紹祖、李將軍、李承老、閔石伊、尹介同、尹孝同、趙季同、李諧、李謙、李沙門、李住令、李謨、李友敬、金珊瑚、金龔同、金得千、金卜千、黃敬孫、黃長孫、黃石同、李漢山、崔沔、李守禎、朴遂良、任進誠、金謙、許逐、洪適、洪九成、洪玉峯、崔泳孫、崔自滌、陳有蕃、趙由禮、成文治、李聞、李崇禮、申敬之、申孟之、申仲之、申謹之、金玉謙、金匡殷、司謫**黃貴存**、高陽記官仲銀、高陽記官植培、集賢殿校理朴引年、集賢殿修撰朴耆年、都鎮撫李裕基、府使成三願、正郎成三省、成均館學諭河紀地、博士朴大年、別侍衛李義英、李禎祥、中樞院錄事李智英、成均生員朴憲、成均生員河紹地、成孟瞻、成孟平、成孟終、朴珣、朴奮、李公澹、河琬、河璉、河班、柳貴連、柳松連、俞思守、朴崇文、宋石全、宋昌寧、崔得地、崔致地、金九知、成三聘、權署、權著、崔斯友、鄭冠、奉汝諸、金堪、金漢之、金善之、李昊、張貴男、李午、李末生、沈上佐、朴永年、黃善寶、權九之、金玄錫、許延齡、許九齡、趙清老、李祥孫、朴良誠、觀察使庾龜山、庾鰲山、學生沈希哲、學生朴守明、碩興品官安順孫、金由性、安處強、安孝友、順興記官仲才、宦者金衍、**金大丁**、韓崧、池爭、李貴、印平、柳臺、尹奇、朴閔、吉由善、崔榮、曹熙、徐盛代、嚴自治、金得誠、金得祥、盲人池和、羅烈豆、奴別監亨中、典農寺奴睦孝智、順興官奴鄭有才、凡三、石丁、石仇知、凡尹、豐山官奴李同、順興軍士黃綴、辛克長、女人宮女楊氏、者介、李午妻阿加之、巫女龍眼、佛德、內隱德、德非。】 정조 15년 신해(1791, 건륭 56) 2월 21일(병인)

전악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악이 담당한 여러 역할 중 휘를 잡는 일도 있었던 바,⁹²⁾ 김달마는 경찬회에서 휘를 드는 것과 같은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李奉老는 1448년 경찬회에 전 부전악의 직책으로 참여하였다. 종6품의 調成郎으로서 1448년 이전에 전악서 부전악을 역임하였다. 이봉로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 보이지 않아 그의 활동에 대하여 알 수 없다.

尙洛山은 1448년 경찬회에 부전악의 직책으로 참여하였다. <?>·<?>의 악공 상낙산(尙樂山)⁹³⁾은 尙洛山과 동일인으로 보이며, 1434년 당시에는 음악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1448년에는 실제로 종6품의 조성랑(調成郎)으로 전악서 부전악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음악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에서 상낙산은 1455년 1월에 원효연이 경차관⁹⁴⁾으로서 대마도에 파견되었을 때⁹⁵⁾ 악공으로 수행하였다. 함께 수행하였던 김강, 권미, 고석생이 1448년에 전율이었으므로, 부전악이었던 상낙산이 악공의 책임자로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사료 10-가> 악공 상낙산(尙樂山)과 김종지(金仲止) 등이 사헌부에 호소하기를, “무대(舞隊)인 황식(黃植)·고흠(高欽) 등이 흐리멍덩하게 계달하여 우리들의 관작(官爵)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었습니다.”하므로, 본부에서 황식과 고흠 등을 잡아다가 추문(推問)하니, 임금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악공 등으로서 음률에 능하지 못한 자가 겨우 악보(樂譜)를 익히게 되면 예에 따라 음률에 능한 자가 옮기는데, 매양 강무(講武)에 따르게 되매 시재(試才)에 미치지 못하여 승급(陞級)이 되지 못한다니, 내가 특히 능하지 못한 자의 직(職)을 거두어서 능한 자에게 주고, 사헌부에서 가두고 추문하는 황식·고흠 등은 내가 형조에 내려 그 가두고 추문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어떨겠느냐.” 하니, 도승지 안송선이 아뢰기를, “본부의 장무(掌務)를 불러 이를 물은 뒤에 형조에 내리심이 가하옵니다.”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좃아, 지평(持平) 권준(權準)을 불러 안송선으로 하여금 이를 묻게 하니, 권준이 대답하기를, “식(植)이 말하기를, ‘그 관안(官案)에서 개차(改差)할 만한 자는 임금께서 낙점(落點)하여 이조(吏曹)에 보내셨으므로 개차하였습니다.’ 하고, 흠(欽)은 말하기를, ‘주상께서 신 등으로 하여금 개차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이름을 적어 아뢰게 해서, 이조에 내려 개차하게 하신 것이니, 주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고 하여, 가두어 두고 변정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식(植)과 흠(欽) 등의 언사(言辭)가 비록 한결같지는 아니하나, 모두 나의 소위이니, 식(植)과 흠(欽) 등을 놓아주고, 낙산(樂山) 등이 황식(黃植)·고흠(高欽)을 고소한 이유를 추문(推問)하라.”하였다.⁹⁶⁾

<사료 10-나>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낙산(尙樂山)·김종지(金仲止) 등이 황식(黃植)·고흠(高欽) 등을 고소하였다가 무고(誣告)로 도리어 죄를 받게 되었사온데, 율(律)에 의하면 낙산은 주범이 되니 장(杖) 1백 대에, 종지(仲止)는 종범이 되니 장 90 대에 해당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개차(改差)하라고 명하였는데 황식(黃植)·고흠(高欽) 등을 고소하였으니, 진실로 이들을 죄주어야 마땅하나, 그러나, 무지한 사람을 어찌 족히 논할 것이 있겠느냐. 그 죄를 용서하라.”⁹⁷⁾

92) “또 궁정에서 책을 받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 . . 전악(典樂)이 휘(麾)를 드는 자리에 나아가고, . . .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전정의 서쪽 방으로부터 나오면, 전악이 휘를 들고 평화(平和)의 악(樂)을 연주한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영락 16) 11월 9일(을묘)

93) 왕조실록 번역에는 상요산으로 번역되었다.

94)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의 강화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특정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중앙 관원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파견하였다.

95) 단종 3년 을해(1455, 경태 6) 4월 7일(임오)

96) 세종 16년 갑인(1434, 선덕 9) 6월 22일(정묘)

97) 세종 16년 갑인(1434, 선덕 9) 6월 24일(기사)

<사료 10-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통사(通事) 박을생(朴聿[聿]生)과 손계종(孫繼宗), 악공(樂工) 상낙산(尙洛山)·김강(金剛)·권미(權美)·고석생(高石生)은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원효연(元孝然)을 따라 왕래한 공로가 있으니, 아울러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라.” 하였다.⁹⁸⁾

朴種·柳貴生·韓실구디는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이들 3사람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 보이지 않아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알 수 없다.

都末生은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고부관노였으며, 1455년에 전악으로 원종 3등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본인만 양인이 되었다. 1466년에 그의 아이도 양인이 되었다.

<사료 11>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여기(女妓) 금강(金剛)의 아들 도말생(都末生)이 사비(私婢)에게 장가가서 낳은 아이 등은 모두 나이로써 공천(公賤)에 준(准)하여 속신(贖身)하게 하라.” 하였다.⁹⁹⁾

權美는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권미는 1455년 1월에 원효연이 경차관으로서 대마도에 파견되었을 때 악공으로 수행하였다. 다음 <?>에 의하면 권미는 거문고를 담당하였으나, 범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당시 거문고로 명성을 얻은 사람은 이마지였으므로 권미는 경찬회에서 거문고가 아닌 다른 현악기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사료 12> 현금은 악에 있어서 으뜸이며 악을 배우는 문호(門戶)이다. 맹인인 악공 이반(李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종(世宗)에게 알려져 궁중에 출입하였다. 김자려(金自麗)라는 사람도 또한 거문고를 잘 탔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듣고 그 소리를 흠모하였으나 지법(指法)을 배우지 못하였다. 지금 영인들의 악을 비율(比律)한다면 고태(古態)를 면치 못하였다. 영인 김대정(金大丁)·이마지(李尙知)·권미(權美)·장춘(張春)은 모두 한시대의 사람인데, 당시에 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대정의 간엄(簡嚴)한 것과 이마지의 요묘(要妙)한 것은 각각 극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김대정은 일찍 주살(誅殺)당하여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권미·장춘은 모두 범수였고, 다만 이마지만이 사림(士林)의 귀여움을 받고 임금의 사랑을 입어 두 번이나 전악(典樂)이 되었다. 내가 일찍이 희량(希亮)·백인(伯仁)·자안(子安)·침진(琛珍)·이의(而毅)·기채(耆蔡)·주지(籌之)와 함께 마지(尙知)에게 가서 배웠으므로 날마다 맞아오고 어떤 때는 같이 자기도 하여 듣기를 매우 익숙히 하였다. 그의 소리는 채를 통긴 자취가 없이 거문고 밑바닥에서 나온 것 같아서 심신(心神)이 경송(驚悚)하여지니 참으로 절예(絶藝)였다. 이마지가 죽은 뒤에도 그의 음악은 세상에 성행하여 지금은 사대부집 계집종이라도 이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 이마지의 유법(遺法)을 배운 것이고 고몽(瞽矇)의 누습은 남아 있지 않았다.¹⁰⁰⁾

金致는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인순부(仁順府) 노비였으며, 1455년에 전악으

98) 단종 3년 을해(1455 경태6) 5월 5일(기유)

99) 세조 12년 병술(1466, 성화 2) 8월 23일(임술)

100) 玄槩於樂最善。學樂之門戶。有盲李班。遇知於世宗。出入禁中。有金自麗者。亦善鼓琴。余少時聽之。慕其音而不得指法。今若律以伶人之樂。則未免古態也。伶人金大丁李尙知權美張春皆一時人。當時論者云。大丁之簡嚴。尙知之要妙。各臻其極。大丁早誅未及聽。美春皆凡手。惟尙知爲士林所重。至紆聖眷。再爲典樂。余與希亮伯仁子安琛珍而毅者蔡壽之。嘗往學焉。日日邀致。或時偕宿。聽之甚慣。其爲聲也。如從琴底出。無匙撥所行之跡。心神驚悚。眞絕藝也。尙知死後其音盛行於世。今士大夫家女僕。亦有能之者。皆得尙知遺法。無瞽矇鄙習。 □□용재총화□□ 권1.

로 원종 3등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양인이 되었다.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高石生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고석생은 1455년 1월에 원효연이 경차관으로서 대마도에 파견되었을 때 악공으로 수행하였다.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徐益成은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가야금 잡이였으며, 일본에 가서 죽었고, 1460년에 원종공신이 되었다. 1460년에 원종공신이 된 사람들은 모두 1455년 원종3등공신 지정 때 누락된 사람이며, 그 이유는 1455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익성은 1448년에 경찬회에서 가야금이 아닌 다른 현악기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¹⁰¹⁾ 1455년 1월 29일 ~ 3월 22일 사이에 원효연이 경차관으로¹⁰²⁾ 대마도에 갔을 때 상낙산·김강·권미·고석생과 함께 악공으로 수행하였다가 대마도에서 사망하였다.

<사료 13>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 . . 전(前) 전율(典律) 서순(徐順)·이장수(李長守)·이효석(李孝碩)·민후경(閔後京)·이치(李致)·김경절(金敬節)·강여지(姜汝止)·이거(李巨), . . . 전악(典樂) 서익성(徐益誠)·황종생(黃從生), 전율(典律) 김간(金澗)·이휘(李暉)·탁희생(卓希生), . . . 도관(都官)의 종 대난(大難), 사노(私奴) 전금석(田金石)·김오민(金吾敏)·최미(崔未)·나노(羅老)·만산(萬山)·석송(石崇)·현만동(玄萬同)·승재(升才)·타내(他乃)·대평(大平)·오마지(吾麻知)·사라지(沙羅只)·마적(麻的)·도치(都致)·중산(仲山)·귀생(貴生), 맹인(盲人) 이영선(李永宣), 제생원(濟生院)의 종 화상(和尚) 등은 모두 원종 3등 공신(原從三等功臣)에 기록하라.”하였다.¹⁰³⁾

金剛은 1448년에 종7품의 司協郎으로서 전악서 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金剛은 1455년에 원효연이 경차관으로서 대마도에 파견되었을 때 악공으로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종공신과 良人이 된 명단에 없다. <?>의 金剛은 <?>의 金剛과 동일인으로서 1466년 원종공신인 허오의 예에 따라 양인이 된 점으로 보아, 원종공신이어야 하거나 허오와 같은 악공이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사리영웅 기□□의 金剛이 기녀 金剛과 동일인이라면 전악서에는 남성 악공뿐만 아니라 여성 악공도 함께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경찬회에 참여한 인물이 악기를 담당할 악공 외에도 죽간자·무동·歌者가 있었던 점에서 본다면 金剛이 여성이라는 점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문을 제기하며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金剛이 여성이라면 경찬회에서 노래를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101) 1448년에 이승연은 정7품으로 종7품인 서익성보다 높은 품계에 있었고,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승연이 가야금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02)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1448년과 1455년 사이에 경차관이 대마도에 파견된 것은 1455년 원효연이 유일하다.

103) 세조 6년 경진(1460, 천순 4) 5월 25일(경자)

高永善은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공신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1471년 악공에서 악사로 승진하는 문제로 도제조인 홍달손과 제조인 정침과 이견이 있었다. 경찬회에서 역할은 알 수 없다.

<사료 14-가> 장악원 도제조(掌樂院都提調)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이 와서 아뢰기를,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정침(鄭沈)이 악사(樂師)·악공(樂工)의 체아직(遞兒職)의 천장(薦狀)을 신(臣)과 더불어 같이 상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하였습니다. 조금도 같이 일을 맡아 보는 뜻이 없으니, 청컨대 신(臣)의 제조(提調) 자리를 갈아치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정침을 갈아치우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만약 경(卿)의 말과 같다면 마땅히 정침을 체직(遞職)시켜야 할 것이다.” 하고 명하여 정침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으니 정침이 아뢰기를, “천장(薦狀)은 신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공(樂工)의 천장(薦狀)은 낭청(郎廳)에서 홍달손에게 보고하고 한 것이며, 악사(樂師)의 천장(薦狀)은 홍달손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고영선(高永善)을 천거하지 않는다면 비록 도목(都目)을 꺾(闕)하게 되더라도 나는 서명(署名)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천장(薦狀)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 전지하기를, “알겠도다.” 하였다.¹⁰⁴⁾

<사료 14-나>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와서 아뢰기를, “홍달손(洪達孫)은 실로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가 아니고, 세조(世祖)께서 특별히 명하여 본원(本院)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근자에 홍달손(洪達孫)이 악공(樂工) 고영선(高永善)을 악사(樂師)로 삼고자 하여 강경하게 천장(薦狀)을 낸 것은 진실로 법을 어기는 예(例)이니, 청컨대 체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반드시 추론(追論)할 것은 없다.” 하였다.¹⁰⁵⁾

高오망디는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없다.

黃從生은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1455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1460년에 원종공신이 되었다. <?>의 황종생(黃鍾生)은 황종생(黃從生)과 동일 인물로 보이며, 1462년에 의금부에 잡힌 기록이 있다. 경찬회에서의 역할은 알 수 없다.

<사료 15> 이보다 먼저 악공(樂工) 황종생(黃鍾生)과 사노(私奴) 가질박(加叱朴)·김의동(金義同)·오망지(吾亡知) 등이 무림정(茂林正) 이선생(李善生)의 아들 이종손(李終孫)을 구타하였는데, 종손의 형 명천정(明川正) 이장손(李長孫)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다.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모두 가두게 하여 황종생은 옥(獄)에 갇히고 가질박 등은 도망해 숨었으므로 쫓아 잡기를 명하였는데, 어찰(御札)을 내려 속히 노주(奴主)를 잡으라 하니, 이에 이르러 소윤(少尹) 유계번(柳季潘)이 아뢰기를, “노주가 모두 3인(人)인데 그 2인(人)은 외방에 있고 그 1인은 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입니다. 또 그 중 3인(人)은 이미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속히 가두지 아니하고 오늘에야 취지(取旨)하느냐? 심히 옳지 못하다.” 하고, 유계번과 황종생 등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다.¹⁰⁶⁾

韓德生·李碩山·林晞·金重斤은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경찬회에서 그들이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없다.

李오마디는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이오마디의 ‘디’는 구개음화로 현재 발음은 ‘지’이

104)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 3월 14일(정해)

105)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 6월 13일(갑인)

106) 세조 8년 임오(1462, 천순 6) 10월 16일(정축)

다. 李오마디, <?>·<?>·<?>에 보이는 이마지(李尔知), <?>에 보이는 이오마지(李吾麿智), <?>에 보이는 이마지(李馬智)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정상훈의 연구에서도 ‘오마디’에서 ‘오’는 의미 없는 감탄사로 해석하였다.¹⁰⁷⁾ 이마지의 아버지인 이법화는 악공으로 거문고 잡이였으므로 세습하던 전통에 의해 이마지가 거문고 잡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마지는 거문고를 연주하던 악공[광대] 이법화의 아들로서 효령대군의 반당(伴黨)¹⁰⁸⁾으로 있었다. 거문고로서 이름을 떨쳤고, 전악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성현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다. 경찬회에서 거문고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16-가> 명하여 전 판관(判官) 이승(李昇)·전 소윤(小尹) 권보(權堡)·악공(樂工) 이법화(李法華)·환자(宦者) 김기(金奇)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 . . 목진공(睦進恭)이 아뢰었다. “이법화(李法華)가 말하기를, ‘전년 정월에 세자께서 밤을 타서 구종수의 집에 이르러 저를 부르기에 제가 이오방과 함께 갔었는데, 뒤이어 상기(上妓) 초궁장(楚宮粧)이 와서 노래하니, 저더러는 금(琴)을 타게 하고, 이오방에게는 적(笛)을 불게 하여 밤을 새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초궁장을 끼고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세자가 음률을 좋아하니, 영인(伶人) 이오방과 이법화 등이 날마다 음벽(淫僻)한 일로 유인하였고,¹⁰⁹⁾

<사료 16-나> 또 효녕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광대 이법화(李法華)의 아들 이오마지(李吾麿智)는 나의 반당(伴黨)인데, 세자가 항상 법화의 집에 와서 혹은 자기도 하고, 혹은 잔치도 하니, 오마지는 매양 이윗사람을 속여 말하기를, ‘우리 주공(主公) 효령 대군이 우리 집에 왔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다른 반당 한 사람이 탐색해서 알고 걸로 모르는 체하며, 오마지더러 말하기를, ‘나도 주공을 뵙고자 한다.’고 하니, 오마지는 온갖 탈을 하고 들여보내지 아니했다. 새벽녘에 세자가 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역시 따라와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공을 뵙고 싶다.’고 하니, 오마지는 말 옆에서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였다.¹¹⁰⁾

<사료 16-다> 국조(國朝)에 거문고 타는 악사(樂師) 이마지(李馬智)란 자가 그 숨씨가 당대에 으뜸이었다. 장지(長指)로 제일궁(第一宮)을 짚어 줄을 튕김에 가볍고 무거운 억양이 무상하게 변하니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의 맑고 흐리며 높고 낮으며 가늘고 굵으며 성글고 짙은 소리가 모두 이에서 나왔다. 가락의 기이한 변화가 당시의 악사들보다 출중하여 음악을 즐기는 인사들이 다투어 맞이해 갔다. 매양 달밤이면 빈 대청에서 손 가는 대로 한 가락 타면 바람이 일고 물이 소용돌이치듯 하며, 하늘은 차고 귀신의 휘파람 소리와의 같아 듣는 자로 하여금 머리칼이 쭈뼛쭈뼛 서게 하였다. 어느 날 자리에 앉은 이들이 모두 정승이거나 귀한 손님들이었다. 이악사 이마지가 정신을 가다듬고 한 곡조 타니 구름이 가듯 냇물이 흐르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툭 트이는가 하면 홀연히 닫히며 퍼지고 오무라들이 변화무쌍하여 좌상에 앉은 이들이 음식 맛을 잃어 술잔을 멈추고 귀 기울여 정신을 모으고 우두커니 앉은 모습들이 흡사 우뚝 선 나무와 같았다. 갑자기 변하여 고운 소리를 내니 버들개지가 나부끼듯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듯 광경이 녹아날 듯 고운 듯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취하고 사지가 사르르 풀리는 듯하였다. 또 다시 높이 올려 웅장하고 빠른 가락이 되니 깃발은 쓰러지고 북은 울리는 듯 백만의 병사(兵士)가 일제히 날뛰는 듯하여 기운이 뻗치고 정신이 번쩍 들며 몸을 일으켜 춤추게 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변하여 상성(商聲)으로 크게 울리니 숲들을 흔들고

107) 정상훈, “갑인자본 □□사리영웅기□□에 대하여;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1994), 제7집, 105쪽.

108)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왕자·공신(功臣) 및 당상관(堂上官) 등에게 나라에서 주둔, 개인(個人)의 신변(身邊)을 보살피는 병졸. 일종(一種)의 산직(散職)으로 병조(兵曹)에서 임명(任命)하였음. 다음 한자사전

109) 태종 17년 정유(1417, 영락 15) 2월 15일(임신)

110) 세종 1년 1월30일(을해).

나무도 뒤흔들 듯하여 산과 골짜기가 다 우는 듯하고 치조(徵調)로 되니 원송이가 수심 짓고 두견이 원망하는 듯하여 나뭇잎이 우수수 지니 진정 감개가 처량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속눈썹을 적었다. 이어서 다시 줄을 바로잡고 진(軫)을 옮겨 한 번 쪽 그으니 우렛소리가 똑 그친 듯, 남은 소리가 잔잔히 울려 창틈이 바르르 떨어다. 거문고를 밀어 무릎 아래에 놓고 옷깃을 여미고 슬픈 얼굴을 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인생 백년도 잠깐이요, 부귀 영화도 한순간이다. 영웅호걸의 의기(意氣)도 그가 죽고 나면 뉘 알리오. 오직 문장(文章)에 능한 사람은 그의 글을 남기고 글씨와 그림에 능한 사람은 그 자취를 비교하여 저작자(著作者)들의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니 천년 만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다. 허나 나 같은 이는 몸이 한낱 아침이슬처럼 사라지고 나면 연기가 사라지고 구름이 없어지듯 하리니 비록 이마지가 음률에 능했다 하나 뒷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그 재주를 알아주랴. 옛날 호파(瓠巴)와 백아(伯牙)는 천하에 오묘한 기술을 가졌으나 죽고 난 그날 저녁 이미 그 소리를 다시 들어볼 수 없었거늘, 하물며 천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라.” 하고는 말을 마치고 긴 한숨을 내어 쉬니 자리에 앉은 이들이 모두 눈물로 옷깃을 적시더라. 이마지 같은 이는 정말 옹문주(雍門周)와 비등한 기술을 가졌다 할 것이다. 그의 신기한 곡조들은 대부분 스스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야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어쩌다가 한두 곡을 몰래 배운 자가 있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이마지의 곡조라 하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하여 마침내 그 온존함을 잃어 버렸으니, 마치 광릉산(廣陵散)의 곡조가 전해지지 않음과 같다. 또 여자 악사 조이개(曹伊介)란 이가 있어서 가야금 타는 솜씨가 기묘하여 이마지(李馬智)와 동시대에 살면서 각각 그 기술의 극치를 이루었으므로 나라에서는 악사의 명수로 이 두 사람을 일컬었다고 한다.¹¹¹⁾

都善吉은 1448년에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으로서 전악서 부전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도선길은 <?>에 의하면 향비파의 명수였고, <?> <?>에 의하면 당비파의 명수이기도 하였다. 송전수와 함께 연주할 때는 송전수가 향비파를 연주하고, 도선길은 당비파를 연주하였다. 향비파에서 송전수를 능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찬회에서는 당비파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차장수(車長守)·백춘생(白春生)·오귀동(吳貴童)·조문수(曹文殊)·김득수(金得守)는 1448년에 종9품의 조절랑(調節郎)으로서 전악서 직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이들 4명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경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다.

김장수(金長守)는 1448년에 종9품의 조절랑(調節郎)으로서 전악서 직율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세조 6년에 김장수의 고신을 돌려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고신을 박탈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찬회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없다.

111) 國朝有琴師李馬智者。手法妙一時。以長指按第一宮。下指乍輕乍重。抑抑搖轉。五音六律。清濁高下。細大疎數。皆於是出。聲調奇變。迥絕流輩。賞音之士。爭邀競致。每於虛堂月夜。信手一鼓。風起水湧。天寒鬼嘯。聽之者毛髮慄然。一日座上皆卿相貴客。李師極意調弄。雲流川瀉。續續不絕。倏開忽闔。舒慘難定。座上方志味停酒。結耳凝思。嗒然如喬木。忽流爲艷伏。絮蕩花亂。光景融洽。不覺怡魂醉心。肢體弛漫。又激爲壯迅。旗假鼓作。百萬齊起。不覺氣奮神聳。躍身舞手。俄變商聲大肆。則搖林震木。山谷皆應。徵調則猿愁鵲怨。木葉俱下。固已淒情酸骨。暗淚承睫。乃復整徵移軫一劃。雷過而輟。餘響裊裊。窓隙皆鳴。推琴下膝。斂衽愀容。仰天而喟曰。人生百年。奄若駒隙。富貴榮華。春夢一覺。英豪意氣。沈沒誰知。獨能文章者有其述。工書畫者留其蹟。垂之後世。托名不朽。後之人較其跡。而知其所得之淺深。千百萬歲如一日。若余者身先草露泯然。如烟消雲滅。雖云李馬智善於音。後人何從而知其品第耶。瓠巴伯牙天下之妙。身歿之夕。已無從考其聲。矧今千載之下乎。辭竟長吁。座上皆泣下霑襟。若馬智者。眞雍門周之流乎。其異操新腔。多自意製。人有願學。固靳不授。或有偷得一二。至今傳以爲李馬智調。而流訛變眞。竟失其全焉。其猶廣陵散之無傳乎。又有女師名曹伊介者。妙於伽耶琴。與馬智同時。而各極其至。國朝工師推此兩人云。 김안로, □□회락당고□□ 권 8. 25a7-26b5. ‘용천담적기’ 중. □□한국문집총간 21□□ 447쪽.

김간(金間)·이휘(李暉)·송승전(宋勝全)은 1448년에 종9품의 조절랑(調節郎)으로서 전악서 직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김간(金間)은 세조실록에 김간(金澗)으로 기록되었다. 김간(金澗)과 이휘(李暉)는 <?>에 의하면 1460년에 전율(典律)로서 원종 3등공신에 기록되었다. 송승전은 <?>에 의하면 1454년에 송전수와 함께 고신이 환급되었다. 경찬회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장춘(張春)은 1448년에 종9품의 조절랑(調節郎)으로서 전악서 직을 역임한 상태로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이마지·권미와 동 시대 인물이며, 거문고 차비였으나, 크게 명성을 떨치지지는 못하였다. 경찬회에서 이마지가 거문고를 담당하였을 것이므로 장춘은 거문고가 아닌 다른 현악기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상 경찬회에 참여한 전악서 악공 32명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경찬회에 참여한 전악서 악공

	품계	직책 명	이름	공신/ 직책 /비고	경찬회 역할	번호
1	司成郎	典樂署 典樂	黃貴存	/가야금	집박 또는 집사	88
2	司成郎	前 典樂署 典樂	金達磨		집박 또는 집사	89
3	調成郎	前 典樂署 副典樂	李奉老			98
4	調成郎	典樂署 副典樂	尙洛山	/대마도		99
5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朴種			104
6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柳貴生			105
7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韓실구디			106
8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都末生	공신		107
9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權美	/대마도/凡手	현악기	108
10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金致	공신		109
11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高石生	/대마도		110
12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徐益成	공신 /대마도死	현악기	111
13	司協郎	前 典樂署 典律	金剛	/대마도		112
14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高永善	공신	????	131
15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高오망디			132
16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黃從生	공신/ /대마도		133
17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韓德生			134
18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李碩山			135
19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林晞			136
20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金重斤			137
21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李오마디	/李尔知	거문고	138
22	調協郎	前 典樂署 副典律	都善吉		당비파	139
23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車長守			169
24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金長守			170
25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白春生			171
26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吳貴童			172
27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金間	공신		173
28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李暉	공신		174
29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曹文殊			175
30	調節郎	前 典樂署 直律	金得守			176
31	調節郎	典樂署 直律	宋勝全			179
32	調節郎	典樂署 直律	張春	/凡手	현악기	180

다. 액정서와 소속 미상의 악공

상림원과 전악서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 중 악공으로 확인된 것은 액정서 소속의 李長守, 품계와 관직이 없는 황양존·金검불·梁망오지가 있다.

이장수(李長守)는 奉事郎으로서 1448년에 액정서 내반종사를 역임하였고, <?>에 의하면 1455년 이전에 전율을 역임하고 사망하였으며, 1460년에 원종 3등공신이 되었다.

황양존(黃良存)은 <?>에 의하면, 황귀존의 아우로 황귀존이 계유정난에 관련된 것 때문에 토산(兎山)에 영속(營屬)되었다가 1472년에 본인의 원에 따라 군인이 되었다. 황양존이 악공이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정근인명에 포함된 점, 김검불·양망오지와 가까운 곳에 기록된 점, 악공의 신분은 세습이었던 점으로 보

아 황양존은 1488년에 체아직을 받지 못한 악공으로 추정된다.

<사료 17> 의금부에 전지하여, . . . 사천(泗川)에 영속한 난신 **대정(大丁)의 아우 소정(小丁)**, 고양(高陽)에 영속한 난신 하석(河石)의 형 하석견(河石堅), 해주(海州)에 영속한 난신 양옥(梁玉)의 아우 양진(梁進), **도산(兔山)에 영속한 난신 황귀존(黃貴存)의 아우 황양존(黃良存)·황계존(黃季存)**, . . . 종원 충군(從願充軍)하게 하고, . . . 112)

梁망오지¹¹³⁾는 품계와 직책 미상의 인물로 1448년 경찬회에 참여하였다. <?>에 의하면 梁忘吾之는 남원 관노(南原官奴)였으며, 1455년에 직율로 원종3등 공신이 되었고, 1456년에 양인이 되었다.

김검불은 <?>의 악공(樂工) 김검불(金檢佛)과 동일인으로 1460년에 원종 3등 공신이 되었다. 김검불¹¹⁴⁾은 공신책봉이 된 1460년까지도 체아직에 임명되지 못하고 악공의 신분으로만 있었다.

<사료 18>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고(故) 직장(直長) 안철성(安哲成)·이종근(李宗謹), 판관(判官) 박중종(朴仲宗), 중훈대부(中訓大夫) 오간(吳幹), 녹사(錄事) 임미(林枚), 고(故) 사성(司成) 김소(金翹), 전(前) 부사정(副司正) 김성복(金成福), 진무부위(進武副尉) 최유하(崔有河), 고(故) 대경(大卿) 홍진(洪珍), **악공(樂工) 김검불(金檢佛)**, 사노(私奴) 박경금(朴京金)·최타내(崔他乃), 본궁(本宮) 노(奴) 백지(白之), 학생(學生) 장안로(張安老)를 원종 공신(元從功臣) 3등에 추록(追錄)하라.”¹¹⁵⁾

액정서와 소속 미상의 악공 4명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경찬회에 참여한 액정서와 소속 미상 악공

	품계	직책 명	이름	공신/ 직책	경찬회 역할	번호
1	奉事郎	前 掖庭署 內班從事	李長守	공신/ 전율		164
2			黃良存	도산에 귀양		192
3			金檢佛	공신/ 악공		196
4			梁망오지	공신/ 직율		198

이상 상림원·전악서·액정서 등에 소속된 악공을 개인 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찬회에 참여한 악공은 전악서뿐만 아니라 상림원·액정서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세조의 편에 서있던 김윤산 등은 원종공신이 되었고, 반대편에 서있던 황귀존 등은 정분 등과 함께 제거되었다. 악공 중 차비(差備)¹¹⁶⁾가 밝혀진 것은 상림원의 송태평 등 5명과 전악서의 황귀존 등 6명이다.

상림원 소속의 김윤산 등 11명과 액정서 소속의 이장수 그리고 소속 미상의 3

112)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5월 24일(경신)

113) 망오지는 망아지의 뜻임. 정상훈, “갑인자본 □□사리영응기□□에 대하여;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1994), 제7집, 107쪽.

114) 검불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검은 불알’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정상훈, “갑인자본 □□사리영응기 □□에 대하여;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 1994), 제7집, 107쪽) 그러나, 검불은 현재까지 일부지방에서 ‘마른 풀 또는 낙엽’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방언이므로, 정상훈의 해석에 수긍할 수 없다. 현재의 방언이 과거 중앙에서 사용되었던 (표준)용어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15) 세조 6년 경진(1460, 친순 4) 8월 17일(경신)

116) 차비는 담당 악기의 뜻으로 쓰이며, 경찬회에서는 전공 악기 외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명이 실제 경찬회 의식에 전악과 악공으로 활동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 15명 모두가 실제 소속과는 달리 전악서의 악공으로 활동하였다고 하겠다. 문집에 기록된 악공의 행적으로 미루어 그들은 궁중의 행사는 물론이고, 민간의 음악활동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양준·김검불·양망오지 등에 대하여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 대부분은 하인이나 심부름꾼 등 악공보다 더 미천한 존재였을 것’¹¹⁷⁾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김검불은 악공이 되었고, 양망오지는 <?>에 보듯이 남원의 관노였던 점으로 보아 이 두 명을 비롯한 소속 미상의 인물들은 ‘악공보다 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상림원 혹은 전악서에서 신역(身役)을 지고 있는 관노로 보아야 한다. 이들이 1460년에 악공 또는 직율이었다는 점에서 3명은 1448년에 체아직을 받지 못한 악공이었거나, 무동(舞童) 또는 가자(歌者)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에 따라 황양준·김검불과 양망오지의 이름 부근에 있는 일단의 인물들이 집화무동 또는 가자(歌者)·죽간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5. 악공의 복무(체아직)

경찬회에 참여한 악공이 45명 ~ 50명이지만, 실제 음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인원은 다음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죽간자·노래·집화무동을 포함하여 67명이다. 정근입장인명 중 전악서 악공은 전악인 황귀준을 포함하여 32명뿐이며, 67명에서 35명이 모자란다. 음악 연주에 부족한 인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림원(11명)·액정서(1명)·소속미상(3명)의 인원들이 담당하였다.

<표 5> 경찬회 음악관련 참여자

역할	인원수	비고
지휘 및 감독	4	수양대군, 박연, 임동, 안충언
전악	2	김윤산, 황귀준
악기연주	45	
죽간자	2	
노래	10	
집화무동	8	
계	4/67	

위 <?>에서 살펴본 47명 중 상림원과 전악서·액정서의 악공 43명이 받은 관직은 체아직이다. 체아직이란 조선 초기에 시행한 순번근무 제도이며, 전악서의 체아직은 ‘원로 악공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잡직’¹¹⁸⁾으로 해석되었고, 이들은 다른 악공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⁹⁾

그러나 <표 ?>·<표 ?>에 의하면 상림원 소속의 악공 11명은 모두가 1448년

117) 이정주, “세종 31년 刊 □□사리영응기□□ 소재 정근입장인 분석” □□고문서연구□□(서울:고문서학회, 2007), 제31호, 144쪽.

118) ‘전악서의 경우는 악공 중에서 선발된 원로악공(元老樂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잡직(雜職)의 벼슬아치를 뜻한다.’ 송방송, “전악서와 아악서” □□세종학연구□□, 45쪽.

119)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가 궁중 음악의 실제 연주를 담당했던 명실상부한 음악기관이었다. . . . 이 두 음악 기관은 궁중 음악의 실제 연주자였던 악공과, 악공의 습악(習樂)을 지도하고 감독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거느리고 있었다.” 송방송, “세종조의 아악서와 전악서,” □□세종학연구□□, 59쪽.

당시 체아직에 있었으나, 전악서 소속의 악공 32명 중 4명만¹²⁰⁾이 1448년 당시 녹봉을 받는 체아직이었다. 이것은 전악서의 체아직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악공의 일부를 상림원의 체아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례는 서반의 관직 수가 동반의 관직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매우 흔한 일이었던 것 같다.

전악서의 악공 중 현직 4명의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전(前) 전악서(典樂署)’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녹봉을 받지 않는 전직(前職)이며, 소속 미상의 김검불은 1460년에 관직 없는 악공이었고, 양망오지는 1455년에 종9품인 전악서 직위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전악서의 체아직은 ‘원로 악공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잡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순환 근무’를 위해 운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살펴본 악공 46명 중 세조 등극 후에 원종3등공신이 된 인물은 20명이다. 이들이 원종3등공신이 된 것은 세조 등극에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보다는 잠저(潛邸)에 있을 때 수종(隨從)하였던 일 때문에 받은 것이다. 악공으로 밝혀진 원종공신의 인원수를 보면, 상림원 소속 11명 중 10명(91%), 전악서 소속 32명 중 7명(22%), 액정서와 무속속 3명 중 3명(100%)으로, 비율에서 전악서 소속이 가장 낮다. 그 이유는 세조가 서반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²¹⁾

6. 맺는말

지금까지 □□사리영응기□□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문집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찬회의 간지(干支)와 왕조실록의 간지, 1448년과 1449년에 김수온이 받은 관직(官職)과 상림원의 관직명(官職名)을 조사해 보면, 경찬회는 1448년의 행사였고, □□사리영응기□□는 1449년 간행되었다.

정근에 참여한 261명 중 악공으로 확인된 인물은 46명이며,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관노(官奴)였으며, 세조 등극 이후 원종공신으로 양인이 되었다. 악공 중 차비가 밝혀진 인물은 황귀준을 비롯한 11명이다.

상림원과 전악서의 악공은 경찬회와 같은 궁중의 행사뿐만 아니라 궁중 밖의 음악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전악서의 악공이 전악서 외에도 상림원(11명), 액정서(1명), 무소속(2명) 등 타 기관에서 서반잡직(군직 포함)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들 중에는 연소한 악공·무동 혹은 가자(歌者)도 포함되어 있다.

전악서의 관직인 체아직은 ‘원로 악공의 우대’가 아니라 ‘순번근무제도’로 운영되었다.

120) 전악 황귀준, 부전악 상낙산, 직을 송승전·장춘 이상 4명이다.

121) ‘정근인 가운데 … 수양대군 반대파는 모두 文臣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정주, 146쪽.

그 밖에 전악서에 여성 악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008.봄)